

석사학위논문

공공기관 기록전문직의 직업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2018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문 헌 정 보 학 과

기 록 관 리 학 전 공

장 서 연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이호신

공공기관 기록전문직의 직업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the Job Experience of the
Archival Profession in Public Institutions

2017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문 헌 정 보 학 과

기 록 관 리 학 전 공

장 서 연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이호신

공공기관 기록전문직의 직업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the Job Experience of the
Archival Profession in Public Institutions

위 논문을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문 헌 정 보 학 과

기 록 관 리 학 전 공

장 서 연

장 서 연의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17년 12월 일

심사위원장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심 사 위 원 _____(인)

국 문 초 록

공공기관 기록전문직의 직업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문 헌 정 보 학 과
기 록 관 리 학 전 공
장 서 연

기록관리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래로, 기록관리 영역은 양적으로 그 외연을 꾸준히 확장하고 있다. 관련 법령의 제정을 시작으로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배치된 공공기관이 증가되었고,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양성하는 교육기관도 꾸준히 확대되었다. 지난 20년 동안 국내의 기록관리 분야는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공공기관 기록관리현장에는 여전히 고군분투중인 기록전문직이 존재한다. 기록전문직 관련 연구에 따르면 공직사회의 기록관리 업무나 기록전문직에 대한 몰이해로 기록전문직은 여러 갈등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 기록전문직은 기록현장의 실질적인 행위자이자 기록관리 발전의 핵심적인 주체로서 중요하다. 이들은 기록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고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연구에서는 기록전문직의 직업적인 삶의 구체적인 양상을 파악하려는 시도는 아직까지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제는 기록전문직의 직업경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들의 직업적인 삶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논의가 필요할 때다.

본 연구에서는 기록전문직의 직업경험과 그 속에 담긴 문화적 요인들을

탐구하여 기록전문직의 삶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록전문직을 직업으로 선택하게 된 동기, 기록현장에서 어떠한 직업경험을 하는지, 기록전문직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라는 세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공공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9명의 기록전문직과 반구조화된 면담을 수행하여, 이들의 삶의 모습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김영천의 실용적 절충주의에 기초한 포괄적 분석절차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기록전문직의 직업경험에서 9개의 범주와 3개의 하위주제, 1개의 문화적인 주제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기록전문직의 직업적인 삶의 경험은 ‘동경’, ‘기록관리 황무지’, ‘기관에 동지 틀기’로 표현되었고, 이들의 경험을 관통하는 하나의 문화적인 주제는 ‘기록전문가를 꿈꾸는 사람들’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문화적인 현상들이 도출되었고, 이를 종합하여 기록관리 분야에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기록전문직은 직업적인 삶에서 공통적으로 ‘고립감’의 정서를 공유하고 있다. 기록전문직이 직업적인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 분야와 기록전문직 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기록공동체간의 연대를 강화해야하는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기록전문직은 여러 갈등상황을 겪으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아노미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갈등의 기저에는 ‘모호한 기록전문직의 정체성’이 존재한다. 기록전문직이 어떤 사회적인 가치를 만들어 내는지 널리 홍보하고 사람들의 인식을 제고 시킬 수 있도록, 외부에 드러낼 수 있는 실제적인 기록전문직의 정체성에 대한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셋째, 그럼에도 기록전문직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스스로에 대한 전문성과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즉 이들의 ‘정신’에서 비롯되고 있다. 기록전문직을 보다 더 역사적인 소명과 직업의식으로 결합되도록 기록학 교육에서 철학적인 부분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주요어】 기록전문직, 직업경험, 아키비스트의 역할, 기록전문직 정체성, 소명의식, 질적 연구

목 차

I. 서 론	1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2 연구문제	3
1.3 선행연구	4
II. 이론적 배경	11
2.1 직업의 이해	11
2.2 기록전문직의 이해	14
III. 연구방법	16
3.1 연구 참여자 선정	16
3.2 자료 수집 및 절차	18
3.3 자료 분석 및 절차	20
3.4 연구의 윤리성	24
3.5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24
IV. 연구결과	26
4.1 동경	28
4.2 기록관리 황무지	41
4.3 기관에 등지 틀기	58
V. 종합 및 논의	76

VI. 결 론	85
참 고 문 헌	89
부 록	95
ABSTRACT	96

표 목 차

〈표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17
〈표 2〉 공공기관 기록전문직의 직업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면담질문지 ...	19
〈표 3〉 실용적 절충주의에 기초한 포괄적 분석 절차	20
〈표 4〉 참여자의 녹취문 분류와 코드명 붙이기 예시	22
〈표 5〉 직업선택 동기관련 범주 생성의 결과 예시	23
〈표 6〉 공공기관 기록전문직의 직업경험에 대한 문화적 주제	27

그림 목 차

〈그림 1〉 용어카드 활용 예시	23
-------------------------	----

I.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기록관리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어느덧 20여 년이 되었다.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5년부터 참여정부에 의해서 공공기관에 기록관리전문요원이 본격적으로 배치되기 시작한 이래로 기록전문직은 양적으로 그 외연을 꾸준히 확장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2017년도 현재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1,944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국가기록원, 행정기관, 헌법기관, 정부산하 공공기관에 자격취득자의 45%인 893명의 전문요원이 배치되었다. 기록전문직을 양성하는 교육기관도 1999년 목포대에 일반대학원 기록관리학 협동과정을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25개의 대학원과 4개의 교육원으로 확대되었다. 지난 20년 동안 기록전문직의 외연은 괄목할만하게 확장되었고, 기록물관리전문요원도 공직 사회를 구성하는 하나의 전문직역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기록관리 영역의 이런 양적 확장의 추세에 발맞추어서 직업으로서 기록전문직에 대한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록전문직이 기대만큼 공무원 사회에서 전문직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러 갈등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기도 한다. 공직사회의 기록관리 업무나 기록전문직에 대한 몰이해로 말미암아 기록관리 업무 이외의 부가적 업무가 늘어나고, 기록관리 본연의 업무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는 경향(서혜란, 옥원호, 2008)이 보고되기도 하고, 기록관리 예산 확보의 어려움(정하영, 2012), 소수직렬인 기록관리직의 불투명한 승진 기회와 조직 내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유현정, 김수정 2016), 처리과 기록물 생산자들의 비협조로 인하여 빚어지는 기록관리 업무의 지연(박태섭, 2017) 등과 같은 부정적인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이런 연구들은 기록전문직의 역할이나 윤리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이거나 직무의 내용에 대한 분석과 설문

조사를 통한 인식 조사 등이 대부분이어서 기록전문직의 직업적인 삶의 구체적인 양상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기록전문직을 선택한 사람들은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수행하면서, 어떤 갈등 속에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기록전문직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가를 파악하려는 시도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바가 없다. 기록전문직들은 뼈와 살을 가진 실제 사람으로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록전문직의 직업적인 삶의 경험과 그 속에 내재한 고유한 문화적인 요소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기록전문직의 직업경험과 그 속에 담긴 문화적 요인들을 탐구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직업경험의 범위는 기록관리 과거-현재-미래 시간의 흐름에 따른 학문선택의 동기, 학문과정, 직업생활 전반의 경험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기록전문직을 직업으로 갖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직업경험에서는 기록전문직으로 살아가기 위해 겪는 공통적인 과정위에서 사람들의 직업에 대한 태도, 인식, 신념, 반복적인 행동양식을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한다.

1.2 연구문제

연구 목적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록전문직이 자신들의 직업을 선택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기록전문직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떠한 동기와 원동력으로 살아왔는지에 대한 조명이 필요하다. 그것은 미래의 기록전문직의 모습을 짐작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예비 기록전문직에게 거울로서 현재 기록전문직들의 동기가 작용할 것임을 기대한다.

둘째, 기록전문직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어떠한 직업경험을 하는가? 기록전문직이 어떠한 직업경험과 그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한국 기록관리의 미래를 짚어질 예비 기록전문가들에게 앞으로 직면하게 될 여러 과제들을 유연하게 대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록공동체에게 자신이 왜 이 학문을 공부하고, 이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록전문직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인가? 기록전문직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아봄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제시하고 좇을 수 있는 기록전문직의 이상적인 모델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것은 우리가 이 직업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그 꿈을 꾸고 좇을 수 있는 지향점이 되기 때문이다.

1.3 선행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 기록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의 직업 경험 속에 내재한 문화를 탐구하여 보다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기록전문직을 이해하는 것이다. 기록학 분야에서 기록전문직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으나, 기록관리를 수행하는 행위주체인 사람의 관점에서 직업경험을 이해하는 연구는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록전문직의 실태’, ‘기록전문직의 역할’, ‘기록전문직의 윤리’, ‘기록전문직의 전문성’을 다룬 연구를 중심으로 기록전문직의 직업과 관련한 연구를 폭넓게 고찰하였다.

1.3.1 기록전문직의 실태를 다룬 연구

서혜란, 옥원호(2008)는 정부의 범국가적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해가는 새로운 움직임에 기록관리의 혁신을 이루어 나갈 핵심주체는 기록연구사임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기록연구사의 근무실태, 직무만족, 제도운영 등에 관해 최초의 실증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기록연구사가 직무수행 중 직면하는 문제로 업무과중과 인력부족의 문제,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의 소통의 부재, 기록관리에 대한 외부의 인식 부재를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기록연구사 직제의 효율적 운용방안을 위한 개선점으로 기관 특성에 따른 융통성 있는 인력확보 방안과 효율적인 기록관리 업무를 위한 정보공개업무와의 분리를 제시하였으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과 기록관의 호혜적 보완관계를 구축하고, 기록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해 기록연구사 개인의 노력과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홍보기능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영학(2009)은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10년 동안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제도의 운영 현황을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역할, 배치요건, 배치현황과 계획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가 지연되는 현상과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비전임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기록관리제도가 기관에 특성에 맞게 정착

되고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 비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채용이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효과적인 배치를 위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전문적인 인력양성과 재교육의 중요함을 시사했다.

이제혁(2012)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채용이 비정규직으로 배치되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인식하고, 비정규직 지방자치단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중심으로 조직적응과정을 분석하는 행태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질적 연구방법인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8명의 비정규직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심층 면담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들의 조직적응행태를 적극적, 업무 지향적, 중립적, 소극적의 4가지 유형으로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기록관의 행위주체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실태를 질적 연구방법을 도입하여 분석함으로써 기록관리학계의 다양한 연구방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기록관리 업무를 위한 다양한 요소 중 그간 주목하지 않았던 기록관리 행위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유현경, 김수정(2016)은 범국가적 기록관리체계의 수립을 위해 기술과 제도 측면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록물관리를 수행하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역할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 현장에서 느끼는 직무만족도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서울특별시 자치구청 소속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에게 설문조사와 면담을 실시하여 직무만족 구성요인 중 직업의식의 영향력이 가장 큰 요인임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기록관리에 대한 내외부의 인식개선과 기록물관리 전문가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직무만족도 개선방향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재교육을 통한 전문가로서의 역량강화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스스로 자신의 직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록공동체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개인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박소리, 이성민, 김용, 김종혁(2016)은 기관에 홀로 배치되어 어려움에 직면하는 1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체제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직무만족과 조직몰입도가 향상되어야 하며 전문직으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은 국가기록원

의 교육프로그램으로, 획일적이고 이론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 현직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대상으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도와 교육프로그램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사항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그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직무만족과 조직몰입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국가기록원의 교육프로그램의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1.3.2 기록전문직의 역할을 다룬 연구

노명환(2010)은 유럽이 통합되는 과정과 나치 과거사 청산에서 아카이브즈와 아키비스트의 역할이 어떻게 상정되고 수행되는지 실증적으로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아카이브즈와 아키비스트가 사회와 역사의 변혁기에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조명함으로써 인간 사회의 공동체 형성에 있어 공동의 기억과 공동의 의식 정립이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규명하였다. 이를 통해 아키비스트는 특정 사회의 증거, 기억, 의식, 정체성이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지와 같은 고도의 가치판단 문제를 인식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최정은(2011)은 포스트모더니즘 사조에서 촉발된 기록학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에 주목하여 기존의 수동적이고 고정된 아키비스트 역할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졌다. 특히 구술사 영역에서의 구술기록 관리의 주체로서 아키비스트의 적극적 역할론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구술기록의 사회적 가치를 규명하고, 사회적 기억과 기록화 관점에서 구술기록을 논의하였다. 사회적 기억의 기록화에 있어 적극적 행위자로 아키비스트 역할을 재정비해야 하는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사회를 기록화 하는 적극적 행위에서 아키비스트는 왜 그 기록을 수집하고, 폐기하거나 보존하였는지 그 결정에 대한 이유를 명백하게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하며, 아키비스트와 다양한 주제전문가들과 협력을 통한 사회적 기억의 기록화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이현정(2014)은 최근 공동체, 일상, 인권, 정치사회적 운동 등의 기록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지는 흐름에 주목하여, 기록학계의 화두인 기록학 실천주의(Archival Activism)의 기원과 의미, 발전과정을 분석하였다. 특히 월가점령

운동의 기록화 사례를 통해 동시대 기록화의 과제인 아카이브가 어떻게 타자의 수용이라는 문제의식을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기록전문직이 사회운동에 참여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자의식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였다. 기록전문직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관련된 활동을 아카이빙해 나갈 수 있는 반성적 성찰인(reflective practitioner)으로서의 기록전문직 역할에 대한 함의를 이끌어냈다.

신동희, 김유승(2016)은 아키비스트가 도처에 만연해 있는 기억을 수집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대되는 서구의 연구흐름에 주목하여 기억의 사회적 맥락, 역사, 망각의 정치성, 집단의 정체성, 아카이브와 아키비스트를 중심으로 기억과의 관계에 대해 이론적 논의를 펼쳤다. 그리고 공식 기록에 존재하지 않는 우리사회의 이야기를 보존하고 전승하는 기억의 책임을 다하는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탐색하였다. 특히 노근리 사건을 주목하여 기억을 위한 아키비스트는 사회적 기억이 사회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통합적인 지성으로 구성되는지 살피고, 사회적 기억을 조정·장악하려는 권력에 저항하며, 사회에서 소외된 집단에도 주류 집단과 똑같은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힘써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아키비스트 편견 또한 기록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하는 필요성과 업무의 투명성을 염두에 두어야함을 시사하였다.

1.3.3 기록전문직의 윤리를 다룬 연구

오향녕(2002)은 영화와 역사서 등의 사례와 자신의 일화를 통해 기록과 기록관리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집단적 기억을 담는 그릇으로서 보존 기록을 정의하였고, 기록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의 몰이해를 집단적 기억을 창출하고자 하는 우리사회의 연대감과 결속력의 부재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국가 경영으로부터 국민이 배제되었던 역사적 경험을 근거로 공공부문이 시민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집단적 기억의 자의적 조작 혹은 의도적 말소로 이어짐을 비판하였다. 또한 기록과 도서를 비교하여 그 특징을 분석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아키비스트는 개인, 기관, 기업 활동의 증거를 보존하고 다른 이들이 그 증거의 존재를 알고, 이해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임을 시사했다. 이를 위해 아키비스트의 고민의 범주로서 아키비스트 전문직의 윤리규약 의미를 성찰하였다.

이상민(2003)은 기록관리 전문직의 전문직업적인 행위의 주요한 영역에서 따라야 하는 지침인 윤리규약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아메리카아키비스트협회(SAA)의 윤리규약의 주요내용을 제시하고 논평하였다. 윤리규약은 아키비스트의 업무진행에서 비롯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판단의 지표가 되며, 기관의 기록관리 정책은 윤리규약 원칙에 의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윤리규약은 기록관리 전문 업무행위의 최고 표준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모든 기록관리 업무에서 탁월한 업무수행이 가능해짐을 시사했다.

김연경(2013)은 기록관리 전문성에대한 외부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자 전문직의 요건 중 전문직의 윤리와 윤리강령을 통한 기록전문직의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기록관리직의 윤리강령에 대한 문헌연구 통해 윤리항목을 분석하여 설문으로 구성하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록관리직을 대상으로 중요도와 실행도를 측정하였다. 이를 통해 전문직 영역과 기록관리 영역 별로 중요도와 실행도의 순위와 차이를 도출하고, 집단 간의 기록관리직의 윤리항목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규명하였다. 국내 기록관리직의 전문직 윤리에 대한 인식을 실증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한 첫 연구라는데 의의가 있다.

김지현(2014)은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세 분야의 협력과 통합이 강조되는 시대적 흐름에 주목하여,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전문직 가치를 해외 전문직 협회 윤리강령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접근, 개인정보 보호, 소장물 관리, 전문직으로서의 임무, 사회적 책임을 공통된 가치로 분석하여 전문직 가치 요소로 제시하였다. 또한 각 분야의 고유한 윤리적 측면의 차이점을 도출함으로써 상호간의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 간의 상호학습을 통해 협력의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영남(2016)은 기록을 대하는 인간과 이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아키비스트는 누구인지에 대한 물음을 시작으로 기록학 분야에 윤리적 관점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기록학-인류학-윤리학이라는 새로운 기록계열을 그려 내는데 인류학 방법론(참여관찰, 기술지작업)을 적용하였으며 기술방식은 이야기기술(Narrative Description)으로 중심으로 의미를 전달하였다. 이를 통해 아키비스트의 윤리규약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윤리학을 탐구해야 함을 제기하면서 인간학의 지평에서 기록학을 바라봐야 하는 점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아키비스트에게 주어진 기록수행에 대한 진술의무를 통해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키비스트의 윤리의식이 배양됨을 강조하였다. 또한 기록현장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기술하는 능력도 아키비스트에게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1.3.4 기록전문직의 전문성을 다룬 연구

김희정(2007)은 기록관리 전문직의 다양한 유형과 역할 범주에 대해 국외 주요 관련기관과 전문직에 관한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기록관리 전문직의 역할영역에 기본적인 기록관리 직무 역할 이외에 지식관리, 디지털자산관리 등 다각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하며,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유관 기관들과의 협력과 경영능력이 기록관리 전문직에게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소연(2011)은 2010년 기록관리 현안에 대응하면서 기록전문직의 전문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계기로 기록관리 전문성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전문성과 관련한 주요 연구를 분석하여 전문성 개념을 살펴보고, 전문직의 가장 주요한 특성인 배타적 특권과 실천 의무의 양면성을 검토하였다. 기록전문직의 기원과 발전, 실무와 기반학문을 살폈고, 전문직 연구의 일반론을 분석하여 대비함으로써 기록전문직의 전문성을 위한 윤리규약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기록전문직이 전문직으로 자임하기 위해 계속해서 우리사회에 기록전문직이 존재하는 한, 기록전문직 존재의 성찰과 끊임없는 기록공동체 내부의 자기반성을 통해 사회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시사했다. 이 연구는 기록전문직의 전문직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논의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윤은하(2016)는 상이한 공동체 아카이브의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 공동체의 기억과 타자성에 대한 이해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아키비스트의 기본 가치이자 철학인 객관성에 대한 기록학자의 논의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아키비스트의 객관성에 대해 인류학적 해석 방법론 중 클리포드 기어츠의 이론을 근간으로 설명하면서, 문화적 산물로서의 기록을 이해하고 기록학에서 타자성에 대한 논의를 열었다. 또한 아키비스트의 객관성을 스스로를 감춤으로써 보장받는 객관성이 아닌 스스로를 드러냄으로써 보장받는 객관성이야 말로 아키비스트 전문성의 가치임을 강조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기록전문직의 직업과 관련한 연구는 기록전문직의 실태를 파악하고 기록전문직의 역할과 윤리, 전문성 제고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제안하는 연구가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기록관리의 다양한 요소 중 기록을 관리하는 행위주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관점이 나타나고 있는 추세이다. 방법론 측면에서는 양적 방법론과 사례연구,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록전문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직업경험에 초점을 맞춰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기록전문직을 이해하는 연구는 전무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록관리 현장의 행위주체인 기록전문직의 경험에 보다 근본적이고 심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이들이 공유하는 직업에 대한 인식과 태도, 행동양식을 중심으로 기록전문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2.1 직업의 이해

직업의 사전적 정의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이다. 직업(職業)에서 ‘職(직)’은 공동사회에서 개개인의 사회적 역할의 분배인 직분을 일컬으며, ‘業(업)’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일, 행위 그리고 더욱 넓게는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까지 의미한다(조남두, 2015). 서양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에서 직업은 ‘신이 나를 불러 이 일을 맡겼다’는 소명의식과 연계시킨다. 따라서 직업은 사회적으로 맡은 역할, 하늘이 맡긴 소명 등의 의미(이관춘, 2016)가 담겨있다.

인간과 사회에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직업은 개인과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자, 개인과 사회를 연결해주는 가교의 역할을 한다(조남두, 2015). 우선, 노동이 인간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서양의 전통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독일의 경제학자 Schumacher(2011)는 다음과 같이 핵심적인 노동의 역할을 세 가지로 설명하였다. 첫째, 노동은 인간에게 자신의 잠재력을 사용하고 계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둘째,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동의 일을 함으로써 태생적인 자기중심주의를 극복하게 한다. 셋째, 품위 있는 생존을 위해 인간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인간에게 노동은 수입통제의 원천이자, 자기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인간의 사회화를 돕는 장(場)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노동의 의미는 직업을 통해 실현할 수 있으며, 개인과 사회에게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인간, 개인적 차원에서 직업에 대해서 이관춘(2013)은 의무적이든 자발적이든 직장에서의 일의 성과를 통해 만족감과 성취감을 주며, 개인에게 목적의식을 갖게 하며 기술과 창의성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영대 외(2008)는 직업을 개인 생계의 유지와 경제적 활동을 영위해 가는 중요한 수단이자, 직업을 통해 소속감과 심리적 안정감을 갖게 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하

였다. 직업은 개인의 적성과 소질을 스스로 파악하여 이와 일치하는 직업을 선택하고 수행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개인의 정체성은 발견되는 것이다. 조남두(2015)는 직업은 생계를 목적으로 사회구성원이 각자의 역량을 발휘하여 일정한 일에 지속적으로 종사하는 사회활동으로 정의하였다. 인간은 직업을 가짐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꾸리고 다른 사람들과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상부상조하여 전체 사회의 원활한 영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 측면에서 직업은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사회적 역할로서 직간접적으로 사회·경제적 결과를 산출함으로써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이관춘, 2016). 따라서 직업은 일정한 사회적 분담 또는 사회적 역할의 지속적 수행이자 인간의 사회적 역할로 정의할 수 있다(정은재, 김용섭, 2002). 즉 인간은 직업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그 결과 일정한 보수를 사회로부터 지급받아 개인의 일상 생계를 유지한다. 개인과 사회는 직업을 매개체로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매개체로서 의의를 지니는 직업은 타 학문분야의 주요 연구주제로 자리하고 있다. 특히 직업을 수행하는 행위주체에 주목하여 해당 분야의 직업을 이해하는 연구가 현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학에서는 교사의 직업경험(박지희, 2010; 김소영, 2011; 김지연, 2014; 서희정, 2016), 교사의 직업정체성(안아라, 2013; 권진옥, 2014; 채현순, 2016; 이경재, 2017), 교사의 교직사회화(김정은, 2008; 김해경, 2008; 최월순, 2011; 박지원, 2016) 등의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간호학에서는 간호사의 전문직업성(기은희, 2008; 김정미, 2011; 정혜경, 2016; 신채미, 2017), 간호사의 직업이미지(이시라, 2011; 김익지, 2014; 이은수, 2016), 간호사의 조직사회화(김복순, 2001; 김수경, 2013; 위성철, 2016; 구은희, 2017) 등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기록관리학과 인접학문인 문헌정보학에서는 사서직의 인식(이종문, 2013; 오해연, 김기영, 2015), 사서의 직업정체성(이경민, 2008; 송기호, 2010; 이호신, 2012), 사서의 직업이미지(이은철, 김갑선, 2002; 정주희, 2007; 우윤희, 김종성, 2014; 송혜연, 2016), 사서의 직업사회화(김갑선, 2008a; 김갑선, 2009b; 김갑선, 2013c) 등의 논의가 이루어

어지고 있다. 타 분야의 직업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직업현장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현장과 이론이 공존하는 기록관리 학문 역시도 직업현장의 발전을 위해 보다 세밀한 주제에 주목하는 직업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보다 세밀한 관찰을 위해 질적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행위주체의 직업경험을 조망하는 연구도 직업연구의 한 측면이다. 이호신(2012)은 주제전문사서들의 직업적인 경험과 그 의미를 내러티브 탐구를 활용하여, 현장 활동에서 사서와 현장지식간의 맺게 되는 상호작용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주제전문사서들의 직업적인 정체성을 탐구하였다. 연구를 통해 밝혀진 주제전문사서들의 직업정체성의 모습은 ‘헤르메스적 삶’이었고, 그들의 직업경험의 의미는 ‘지식의 중개자로서 헌신하는 삶’, ‘학자로서의 삶에 대한 지향’, ‘조력자로서의 삶의 애환’으로 해석하였다. 이를 통해 사서직의 사회적인 역할을 밝히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사서직에 대한 물인식을 해소하는 대안적인 담론을 제시하였다. 조성심 외(2013)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주관적 직업경험을 탐구하고자 질적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그들의 직업경험을 시간성, 공간성, 관계성을 포함하는 3가지 주제, 즉 ‘클라이언트를 보는 시선: 밑바닥에서 현실을 보다’, ‘나를 향한 시선들: 사회복지공무원의 정체성 찾기’, ‘일을 바라보는 시선 : 진흙탕 속에서 꽃 피우기’의 3가지 주제를 도출하였다. 기존 양적연구에서 파악할 수 없었던 직업현장 전반의 생생한 경험과 다양한 내용들을 심층적으로 담아내었다. 이를 통해 직업경험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결과들을 도출하여 활용 가능한 정책과 실천 지침들을 제안하였다. 최명선(2013)은 이론과 실체가 융합되어있는 미술치료분야에서 미술치료사의 전문성 발달의 맥락과 질적인 변화를 총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질적 연구 관행에 대한 대안적 시도인 존재론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미술치료사들의 체험에 집중하였다. 이를 통해 ‘미술치료사의 전문가 되기 여정’의 모습을 ‘운명적 이끌림’, ‘배우고 익힘’, ‘넘어야 될 산’,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기’, ‘실천지로 살아가기’의 본질적인 주제들로 제시하였다. 미술치료사가 실천적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한 교육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미술치료사 교육에 새로운 가능성을 마련하였다.

직업경험을 알아보는 연구는 주로 이론과 실체가 융합되어 있는 학문에서 연구되는 특징이 있다. 직업경험을 탐구하는 것은 직업주체의 전문성 발달 과정의 맥락과 직업정체성의 복합적인 양상을 발견하고, 그들의 목소리로 직업현장의 문제점과 실현가능한 개선방안 등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기록학 분야에서 기록전문직의 직업경험을 이해하고 보다 세밀한 영역에서 기록전문직의 직업세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는 현재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직업 경험의 깊이 있는 이해는 사회 안에서의 기록전문직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앞으로 이론과 실체가 융합되어 있는 기록학에서도 기록관리를 수행하는 행위주체에 주목한 직업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 되며, 질적 연구를 통한 직업 세계의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2.2 기록전문직의 이해

「기록학용어사전」은 기록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레코드매니저(Record manager)와 아키비스트(Archivist)로 구분하여 정의한다. 레코드매니저는 기록생애주기 전반에 대해 기록의 효과적·경제적인 취급, 보호, 처분에 관한 정책과 행정에 책임을 지닌 사람 혹은 한 기관이나 조직의 기록관리책임자이다. 반면 아키비스트는 기록의 진본성과 맥락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출처주의, 원질서 존중 원칙, 그리고 집합적 단위의 통제라는 원칙에 의해 지속적 가치를 지닌 기록의 평가, 수집, 정리, 기술, 보존, 검색 제공 등의 책임을 지닌 사람이다. 혹은 보존 기록을 보관하는 기관이나 지속적 가치를 지닌 기록에 대한 관리, 감독에 책임을 지닌 자를 말한다. 따라서 레코드매니저는 업무수행부서에서 기록관으로 이관하는 과정에 존재하며 대량의 기록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책임자로, 아키비스트는 기록관에서 아카이브로 장기보존 할 가치가 있는 기록에 대한 관리의 책임자로 구분하기도 한다. 그 구분은 기록생애주기의 개념에서의 특정 시점상의 차이로 볼 수 있다.

국내의 기록관리기관 공공표준인 「기관장 등 관리자의 기록관리 책임과 역할」 NAK/S 21:2012(v1.0)과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록

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으로 칭한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기록물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록물관리기관에 배치되는 자로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연구자들의 기록전문직 정의를 살펴보면 유혜정(2012)은 기록관리 전문 인력에 관한 비교연구에서 기록물관리 전문 인력을 기록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전문가로 정의하고, 각 기록물관리기관의 업무기능과 생산 및 수집된 기록물의 특성과 가치를 파악하여 기록관리 전 과정을 효율적이고 균형 있게 운영하는 전문적인 통합·중개·조정 역할로 정의하였다. 송혜진(2013)은 기록전문직의 직무분석에 관한 연구에서 기록전문직을 아키비스트와 레코드 매니저의 역할을 포함하며, 기록물 생산에서부터 활용 및 폐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세계기록관리협의회인¹⁾(ICA 이하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에서는 아키비스트와 레코드키퍼(Record keepers)를 구분하지 않는다. 모두 근본적으로 아카이브의 존재와 이용에 책임이 있는 책임자이자, 아카이브의 물리적 생존과 지적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동일한 기술과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ICA에서는 영국과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아카이브와 기록관리전문직에 대한 자격 및 전문직 기준이 명확하게 전문화 되어 있지만,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는 명확한 전문적인 체계가 없음에도 자신이 아키비스트인지 모른 채 본질적으로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것은 전문적 자격 혹은 기준에 부합하는 것보다 본질적인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레코드매니저와 아키비스트를 구분하지 않고, 아카이브의 존재와 이용에 책임이 있고, 아카이브의 물리적 생존과 지적 무결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 내지는 그 집단을 기록전문직으로 정의하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1) 세계기록관리협의회(IICA) 홈페이지에서는 아키비스트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아키비스트의 정의, 목적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ICA 홈페이지 내용을 번역하였다.
<http://www.ica.org/en/discover-archives-and-our-profession> <2017.05.29. 접속>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공공기관에서 기록전문직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인식과 태도, 행동방식을 이해함으로써, 그들의 직업경험에 내재한 문화적 요인들을 탐구하여 기록전문직을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기록관리를 수행하는 행위주체인 기록전문직의 직업선택 동기는 무엇이고, 직업적으로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며, 그 경험은 그들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기록전문직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는 양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어서 실제로 뼈와 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수치화시켜 보여주기 때문에 기록전문직의 직업적인 삶의 구체적인 양상은 누락되거나 온전하게 보여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기록전문직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인식과 태도, 행동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와는 다르게 질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기록전문직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에 본 장에서는 구체적인 연구방법과 절차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3.1 연구 참여자 선정

연구자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9명의 기록전문직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인터뷰에 응한 참여자들은 공공기관²⁾에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보유한 사람, 현재 공공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두 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기록전문직들이다. 참여자들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본 연구에서는 근무경력을 3년 이상으로 제한하였는데, 자신의 직업생활을 일정 수준 경

2)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공공기관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공공기관의 범위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 공단」,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 급 학교에 해당한다. 따라서 민간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기록전문직은 본 연구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힘하였고, 자신의 직업생활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참여자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평소 기록전문직 제도개선에 관심이 많은 기록전문직 1명을 시작으로 눈덩이 표집법(Snowball sampling)³⁾을 활용하여 최종적으로 총 9명의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성명	성별	연령	현재소속	근무경력
해당화	여	30대 초반	영구기록물관리기관	5년
산수국	남	30대 중반	기록관	5년
고란초	남	30대 후반	기록관	6년
민들레	여	30대 후반	기록관	6년
팽이밥	남	40대 초반	영구기록물관리기관	7년
금낭화	여	30대 중반	기록관	5년
삼백초	남	30대 초반	기록관	5년
문주란	여	30대 후반	영구기록물관리기관	13년
노루귀	남	30대 후반	기록관	8년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인터뷰에 응한 기록전문직은 모두 9명으로 5명은 남성, 4명은 여성이며, 연령은 30대 초반부터 40대 초반까지 분포되어 있다. 기록전문직으로 종사한 경력은 최소 5년에서 최대 13년까지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기록전문직 집단은 규모가 작아 참여자의 신분이 드러날 위험이 존재함으로 개인적인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 할 수 없음을 미리 밝힌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성명을 가명으로 처리하였고, 가명은 거친 기록현장에서도 기록전문직의 소임을 묵묵히 해내는 참여자들의 모습을 산과 들에서 자연 상태 그대로 자라 제 소임을 다하는 야생화에 비유하여 표현하였다.

3) 본 연구에서는 사회 관계망을 추적하거나 아는 사람들에게 물어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찾는 표집 방법인 눈덩이표집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가능한 특정 학부배경에 편중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역사학, 문헌정보학, 정치학, 법학, 정치외교학 등을 전공한 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일부 참여자의 요청으로 세세한 전공은 연구 참여자의 특성에 포함시킬 수 없음을 미리 밝힌다.

3.2 자료수집 및 절차

본 연구의 주된 자료수집방법은 질적 연구를 대표하는 연구방법인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이다. 심층면담은 연구자가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자, 관찰하려는 상황에 대해 폭넓은 견해를 얻고자 할 때 이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된다(김영천, 2016). 본 연구는 심층면담의 형식 중 반구조화 된 면담형식을 적용하였다. 면담 질문지 제작을 위해 문헌, 선행연구, 관련 워크숍 참석, 예비연구, 전문가의 검토 과정을 통해 면담질문지를 제작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을 다룬 문헌들(신경림 외, 2004; Cresswell, 2013; 김영천, 2016)과 타 분야의 직업과 관련하여 질적 연구를 수행한 논문(김갑선, 2008; 박지희, 2010; 이호신, 2012; 신은정; 2015)을 고찰하여 질문 목록을 구성하였다. 연구자는 질적 연구의 한 갈래인 구술사 워크숍에 참석하여 면담기법과 질문지 구성에 관한 연수를 받은 후 이미 제작한 질문목록을 수정하였다.

수정된 질문 목록을 토대로 기록전문직 제도에 관심이 있는 기록전문가와 접촉하여, 7월 중순 한 회기의 예비면담⁴⁾을 실시하였다. 예비면담을 통해 기록전문직의 실태를 파악하였고, 심층면담의 질문내용을 수정 · 보완하였다. 예비면담의 결과로 기록전문직은 다양한 공공기관의 유형에 종사하고 업무의 형태가 상이하며 각 기관마다 기록전문직을 칭하는 명칭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연구자는 예비면담을 통해 공공기관의 기록전문직으로 사용하는 것이 다양한 근무기관과 고용형태를 포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수렴하였다. 예비면담 참여자의 피드백을 토대로 답변이 어렵거나 추상적인 질문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였고, 질적 연구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은 뒤 최종 질문지를 완성하였다(표 2 참조).

심층면담은 2016년 7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2개월에 걸쳐 참여자마다 1회, 50분~130분 동안 이루어졌다. 자유롭고 편안하게 면담에 임할 수 있도록

4) 예비면담은 초보 연구자에게 연구자질과 연구기법을 훈련하는 필수 수단으로 활용된다. 연구의 주제와 목적에 적합한 연구현장, 연구참여자, 연구상황을 파악하고 성공적인 연구를 시작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자료수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유형의 문제를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대비하는데 도움이 된다(신경림 외, 2004).

참여자의 편의를 반영한 시간과 장소에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사전에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하고 면담용 질문지를 메일로 전달함으로써, 참여자들이 면담에 부담을 갖지 않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실제 면담에서는 다시 한 번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자와 함께 연구참여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연구자는 면담 질문지에 기초하여 참여자의 이야기 흐름에 따라 궁금한 점을 추가적으로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심층면담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하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녹음하였고, 면담 직후 진행과정에 대한 연구자의 반성과 성찰이 담긴 면담후기를 작성하였다. 면담내용을 좀 더 세밀하고 체계적으로 해석하고자 녹음 파일은 연구자 스스로 모두 전사하였고, 전사과정에서 의미가 불분명한 부분은 참여자들에게 이메일과 전화로 추가적인 답변을 요청하여 보완하였다.

〈표 2〉 공공기관 기록전문직의 직업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면담질문지

1. 기본인적사항 및 정보	· 이름, 연령, 학부 전공, 현재 소속, 기록전문직 근무경력 등
2. 학문선택동기	· 기록전문직에 관심을 가지게 된 후, 전공으로 선택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3. 학문과정에서의 경험	· 학문과정에서 재밌었거나 흥미로웠던 부분이 있나요? · 학문과정에서 공부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 학문과정에서 지속해서 공부하게 된 원동력은 무엇이었나요? · 수업 이외에 특별히 더 추가적으로 한 공부나 활동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4. 공공기관 기록전문직으로서 직업경험	· 졸업 후의 기록전문직에서 종사하셨던 이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 현재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 현재 하는 기록관리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힘을 기울였으면 하는 일들은 어떠한 일들이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직업을 갖기 전 기대했던 기록전문직으로서의 현실의 일상과 괴리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 기록전문직으로 근무하면서 부딪히게 되는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 기록전문직으로 근무하면서 회의와 갈등을 느낀 적이 있나요? · 기록전문직으로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5. 기록전문직으로 살아가는 것의 의미	· 기록전문직으로 살아가는 것은 본인에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 기록전문직으로서 앞으로의 포부는 무엇입니까?

3.3 자료 분석 및 절차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이며, 현재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기록전문직을 대상으로 직업경험에 관해 심층 면담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료 분석이 이루어졌다. 수집한 자료는 김영천(2016)의 실용적 절충주의에 기초한 포괄적 분석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포괄적 분석 절차의 메커니즘은 내부적으로 순환적이고, 반복적이며, 연역과 귀납의 논리를 오가며 질적 자료를 정제하는 개연적 삼단논법⁵⁾(abduction)에 기초한다. 김영천은 여섯 단계의 구체적 자료 분석 절차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표 3〉 실용적 절충주의에 기초한 포괄적 분석 절차(김영천, 2016)

단계	관계	분석 절차	세부 내용
1단계	↕	자료읽기 및 정리	자료의 반복적 읽기와 자료 정리
2단계	↕	분석적 메모 쓰기	연구자의 통찰과 반영성
3단계	↕	1차 코딩	코딩을 통한 범주의 초기 생성
4단계	↕	2차 코딩	추가적 코딩을 통한 새로운 코드와 범주의 관계파악
5단계	↕	3차 코딩	최종적 코딩을 위한 범주들의 통합 및 문화적 주제 발견
6단계	↕	연구 결과 재현	시각적 모형, 이론제시, 명제 제시, 표, 그림 등

분석의 첫 단계인 자료읽기 및 정리 단계는 전사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연구 질문의 해결을 위해 분석적 민감성을 높이고, 다양한 질적 자료를 정량화, 분류, 저장하는 작업을 말한다. 김영천(2016)은 전사(transcribing)는 단순히 글을 옮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분석 아이디어

5) 가추법 혹은 귀추법이라고도 불리는 개연적 삼단논법(abduction)은 어떠한 현상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한 그럴듯한 설명을 가정한 후 그 자료들을 통해 그것을 확인하거나 변경하며 이론을 도출하는 논리적 추론이다. 질적 자료 분석의 논리로서 개연적 삼단논법은 자료를 통해 가설을 형성하고 그 가설을 자료를 통해 확인하며 그 가설을 지속적으로 변화, 수정하며 설득력 높은 이론으로 발전시키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김영천, 2016).

어가 도출되고 발달한다는 측면에서 분석적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 연구자는 심층면담에서 수집한 녹취된 파일을 여러 번 듣고 내용 그대로 전사하였다. 전사 작업을 통해 연구자는 A4 기준, 159페이지의 녹취문을 수집 및 정리하였다.

두 번째 단계인 분석적 메모 쓰기는 이전 단계인 자료읽기 및 정리 단계와 이후 단계인 코딩 및 연구 결과 재현 작업에서 발생한 연구자의 통찰과 반영성을 메모하는 작업이다. 분석적 메모는 연구자가 자료에 대해 스스로 대화하는 장소이며, 분석 및 해석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Miles & Huberman, 1994). 따라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는 개방적인 태도로 연구자의 고민과 성찰, 흥미를 일으키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 메모하였으며, 엑셀프로그램과 연구노트를 활용하여 정리하였다.

세 번째 ~ 다섯 번째 단계로서의 1~3차 코딩은 코드와 범주들 사이의 지속적인 비교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하나의 문화적 주제나 이론을 생성해 가는 과정을 말한다. 연구자는 반복적으로 자료를 살펴보면서, ‘직업선택 동기’, ‘학문과정에서의 경험’, ‘공공기관에서의 직업경험’, ‘기록전문직으로 살아가는 것의 의미’ 면담질문지에서 구분한 4가지 영역을 색깔별로 분류하여, 참여자들의 답변내용을 엑셀프로그램에 정리하였다. 또한 의미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분석적 메모를 함께 작성하였다.

코딩과정에서는 범주명이나 코드명을 정하기 위해 2가지의 방법을 혼용하여 적용하였다. 첫 번째는 연구자가 스스로 부여하는 방법으로 연구자는 참여자들이 제공한 표현, 용어, 의미들을 포섭 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새로운 은유나 언어를 개발하여 참여자들의 생활세계를 잘 드러내는 용어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김영천, 2006). 두 번째는, 참여자들이 사용한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이름을 붙이는 방법이다. 참여자의 언어가 생동감 있게 범주의 내용을 표현하였다고 연구자가 확신하는 경우에 참여자가 사용한 어휘를 범주명이나 코드 명으로 사용한다(민진영, 2013). 연구자는 두 가지의 방법을 활용하여 알맞다고 생각되는 코드와 범주명을 붙였다. 이 과정에서는 의미가 과장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질적 연구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기록관리를 공부하는 동료 연구자들의 의견을 물어 지속적인 검토과정을 거쳤다.

〈표 4〉 참여자의 녹취문 분류와 코드명 붙이기 예시

인터뷰 질문	인터뷰 답변	분석적메모	코드명
처음 기록관리학 기록전문직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과 흥미를 가지게 되셨는지 말씀해주시겠어요? [직업선택동기]	<u>진보적인 가치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대학생활을 좀 하다보니까 이 기록학을 통해서 이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라든지 갈등들 노동운동이라든지 어떤 영역에서의 운동들을 국가의 기록은 국가기록관리 체제 안에서 잘 보존이 되겠지만 아 이런 소외계층 내지는 이런 좀 진보적인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기록을 관리하는 곳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 걸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때는 그렇게 했던 거죠</u>	자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이루는데 있어, 기록학이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면서 대학원을 진학하였다.	개인의 가치관과 학문의 결합
기록학을 공부하시면서 재밌거나 흥미로웠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겠어요? [학문경험]	하워드 진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배 권력은 기록을 통해서 자기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근데 이제 뭐 노동자라든지 성소수자라든지 이런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 자기기록을 보존할 때가 없다. 그게 기록이 어떤 하나의 권력이다.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기록이 어떻게 우리사회에 우리 사회의 분야에서 어떤 기록을 평가해서 남길 것이냐에 대한 어떤 기록평가론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자신이 가진 생각, 행동, 가치관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정리된 하워드 진의 이론을 접하면서 기록의 이해나 기록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깊어졌다.	가치관에 근거가 되는 학문으로 흥미와 관심 유발
대학원 과정을 지내시면서 기억에 남은 일화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학문경험]	그래도 기록학을 공부하는 선생님이라든지 학생들도 그렇고 되게 좀 사회에서의 기록전문가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도움이 될 것인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을 대학원 시절에 많이 만난 것 같아요. (중략) 공공기관에서의 어떤 기록관리라든지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조차도 기록전문가의 사명, 전문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고민하고 갈등하고 항상 그걸 갈구하고 토론하고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자신은 진보적인 운동을 기록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과 추구하는 바가 달라 결국 사회에 도움이 되려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임을 느꼈다.	학문과정에서 공동체와 연대를 경험

1차 코딩 과정을 통해 9명의 이야기에서 220개의 코드들이 생성되었다. 범주를 생성하는데 용이하도록 용어 카드로 작성하여 여러 코드와 범주들을 분류, 통합, 재구성, 삭제 과정에 활용하였다(사진 1 참조).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보다 추상도 높은 범주를 생성하였다. 단, 처음에 붙인 코드와 범주들이 자료를 다시 읽는 과정에서 여러 번 수정되었다.

〈사진 1〉 용어카드 활용 예시



〈표 5〉 직업선택 동기관련 범주 생성의 결과 예시

코 드	범 주	하위주제
· 아키비스트에 매료 · 자신의 가치관과 학문의 결합	아키비스트의 사회적 역할	기록전문직에 대한 동경
· 6급 상당의 공무원 대우 (취업시장 밝음 포함) · 전문성 추구	전문직의 외연	

범주의 생성은 참여자들의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거나, 같은 범주로 분류할 수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전체 범주 간의 관계를 조직화하였다. 참여자들과의 인터뷰에서는 ‘직업선택 동기’, ‘학문과정에서의 경험’보다 ‘공공기관에서의 직업경험’과 관련된 이야기가 2/3이상 이루어졌고, 이것은 코딩결과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공공기관에서의 직업경험’과 관련한 코드와 범주가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 도출되었다. 범주 마지막 단계에서는 기존의 여러 가지 범주들을 개념적으로 연결하고 포섭하여 하나의 문화적 주제를 생성하고자 하였다. 문화적 주제란 문화기술지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로 어떤 문화의 특성을 일반적, 압축적, 반복적으로 구성하고 표현하는 서술적 명제를 의미하며, 어떤 문화의 다양한 규범, 제도, 관행들을 통합하는 상위의

원리를 말한다(김영천, 2016). 즉, 연구자는 최종적으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기록전문직의 직업적인 삶에서 인식과 태도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이들의 직업경험을 관통하는 하나의 문화적 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 자료분석 과정을 거친 내용을 토대로 연구 결과를 서술하였다.

3.4 연구의 윤리성

질적 연구는 그 특성상 참여자의 경험에 미시적으로 접근한다. 그로 인해 사생활이 노출되거나 생업에 지장을 끼칠 수 있고, 심할 경우 법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신경림 외, 2004).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참여자들의 윤리적인 측면을 보호하기 위해 참여자들에게 구두 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전달하고 동의를 얻었으며, 면담 전 연구참여동의서(부록 참조)에 서명하고 각각 1부씩 나누어 가졌다. 참여자가 동의하고 작성하는 연구참여동의서에는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구체적인 면담 방법과 내용, 연구를 통해 참여자에게 발생 가능한 이익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설명하고 면담을 시작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게 되는 참여자와 관련된 자료는 연구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였다. 본 연구의 경우, 참여자들 대부분이 기록관리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로 그들의 신상이 노출되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의 안정장치를 마련할 것을 약속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자에게 면담 중 부담스러운 질문엔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약속하였다.

3.5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Lincoln과 Guba(1985)의 엄밀성 평가기준인 사실성,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을 토대로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평가하였다.

첫째, 사실성(truth value)은 양적 연구에서 내적타당도에 해당하며, 연구

결과가 경험의 진가를 얼마나 정확히 반영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연구자는 연구의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 도출된 의미단위들이 참여자들의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위해 전사 과정에서 참여자에게 녹취문 내용의 정확성을 검증받은 후 참여자들의 요청에 따라 녹취문의 내용을 가감 수정하였다. 또한 자료 분석 후 3명의 참여자들에게 분석 결과를 이메일로 전달하여, 연구자의 분석된 결과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이 진술한 내용과의 일치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적용성(applicability)은 다른 상황에서 연구 결과가 얼마나 적용 가능한가를 판단하는 것으로 양적 연구의 외적타당도에 해당한다. 질적 연구에서는 참여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을 충분히 경험하고, 이를 언어로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자는 경험의 질과 적용성을 고려하여 기록전문직에서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을 보유하고, 자신의 직업경험을 충분히 경험하였다고 판단되는 기록전문가들을 접촉하여 면담하였다. 또한 적용성 판단을 위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기록전문가 1인에게 연구결과가 본인에게 적용이 가능하지 검증받았다.

셋째, 일관성(consistency)은 양적 연구의 신뢰도에 해당하며, 연구 결과가 유사한 맥락에서 일관성 있게 반복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연구 방법과 자료수집방법, 분석과정을 자세하게 작성하려 노력하였다. 또한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과 결과에 대해 질적 연구의 경험이 풍부한 연구자 1인과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동료 연구자 2인에게 평가를 받아 연구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넷째, 중립성(neutrality)은 양적 연구의 객관성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의 주관성은 연구과정 전체에 내재될 수밖에 없다. 광영순(2009)은 주관성을 관리하는 것과 주관성을 통제하여 배제하는 것을 다르다고 주장하였는데, 연구자가 효과적으로 자신의 주관성을 관리하고 조절하게 되면 연구자의 주관성은 연구의 기본 자산이 되어 연구자로서의 통찰과 관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연구일지와 분석에서 활용한 분석적 메모를 통해 항상 자기반성적 태도로 자신의 주관성을 비판적으로 점검·관리하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IV. 연 구 결 과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기록전문직의 직업경험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록전문직으로 나아가고 있는 개인들의 학문 입문동기, 학문 과정, 직업생활 전반의 경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험은 기록전문직을 직업으로 갖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일반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 일련의 과정 안에서 기록전문직으로 나아가는 참여자들의 인식과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이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인 요소들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로 기록전문직의 직업경험에서 9개의 범주와 3개의 하위주제, 1개의 문화적 주제를 추출하였다. 연구에서 드러난 기록전문직의 직업경험에 내재한 하위주제는 ‘동경’, ‘기록관리 황무지’, ‘기관에 등지 틀기’이며, 이를 통해 그들의 직업경험에서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 주제는 ‘기록전문가를 꿈꾸는 사람들’이었다. 하위주제인 ‘동경’에는 ‘학문 선택동기’와 ‘학문과정’에서의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으며, ‘기록관리 황무지’와 ‘기관에 등지 틀기’에서는 공공기관에서의 직업생활 전반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문화적 주제, 하위주제, 범주, 구성된 의미는 <표 6>와 같다.

〈표 6〉 공공기관 기록전문직의 직업경험에 대한 문화적 주제

주제(1)	하위주제(3)	범주(9)	구성된 의미(20)
기록전문가를 꿈꾸는 사람들	4.1 동경	4.1.1 전문직의 외연	· 안정적인 직업 · 전문직 추구
		4.1.2 아키비스트의 사회적 역할	· 아키비스트에 매료 · 개인의 가치관과 학문의 결합
		4.1.3 청운의 꿈	· 기록의 이해 · 기록공동체와 연대
	4.2 기록관리 항무지	4.2.1 현실의 벽	· 원하는 분야로 진출할 수 없는 한계 · 기록관리를 쓸데없는 업무로 여기는 선입견 · 공무원 직업의 제도적 한계 · 기록전문직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
		4.2.2. 공무원과 전문직 사이에서	· 다람쥐 쳇바퀴 같은 업무 · 경직된 조직문화 · 모호한 정체성
	4.3 기관에 등지 틀기	4.3.1 이용자의 발견	· 업무지원서비스 · 신뢰주기
		4.3.2 법으로 설득하기?	· 타인의 언어 이해하기 · 기록의 자원화
		4.3.3 손에 손잡고	· 동종업계 종사자 · 민간의 기록분야
		4.3.4 긍정적인 기억들	· 자부심

4.1 동경

인간이 직업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욕망은 다양하다. 많은 돈과 사회적 지위를 얻기를 바라거나 가치관과 열정을 실현하거나, 개인의 진가가 밝혀질 기대한다. 세상에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다양한 직업이 존재하고, 때로는 동경하기도 한다. 철학자 강신주에 따르면 동경의 본질은 “지금은 결코 소유할 수 없는 어떤 것에 대한 욕망이나 충동”으로 설명한다(강신주, 2013). 직업은 인간이 현재는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충족하고 싶은 욕망들을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 직업이 지닌 여러 요소 중에 인간을 만족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로먼 크르즈나릭(Roman Krznaric)의 저서 <인생학교 : 일에서 충만함을 찾는 법>에서는 직업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다섯 가지 요소를 제시한다. 그 요소는 돈을 버는 것,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것,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 열정을 따르는 것, 재능을 활용하는 것이다. 돈과 지위는 외재적 동기요인이며, 일을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관점이다. 나머지 측면인 기여, 열정, 재능은 일의 가치를 그 자체로 평가하는 내재적 동기요인에 해당한다. 그는 다섯 가지 요소가 일에서 추구 할 수 있는 의미이자, 특정한 직업으로 이끄는 동기부여의 원천으로 해석된다(Krznaric, 2013). 참여자들은 저마다 기록전문직으로 추구할 수 의미를 발견하고, 기록관리 분야로 발을 내딛게 된다. 이들의 동기에는 기록전문직이 지니고 있는 ‘전문직으로서의 외연’과 기록을 후대에 전승할 수 있는 이 직업의 ‘사회적 역할’에 아스라한 동경 같은 것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그렇게 진입한 학문과정에서는 기록전문직에 대한 동경은 점점 강화되어 ‘청운의 꿈’을 품은 참여자들의 모습들이 발견된다.

4.1.1 전문직의 외연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직업들이 존재한다. 그 직업 중에는 사회적인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전문직이라고 불리는 직업이 존재하며, 그렇지 않은 직

업도 존재한다. 전문직은 실질적으로 긴 기간과 높은 강도의 준비를 해야 하고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진입의 어려움이 존재한다(김성훈, 2006). 누구라도 전문직으로서 위상을 의심하지 않는 의사, 변호사와 같은 직군이 전문직에 해당하며,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스스로 전문가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 다양한 직군들이 존재한다. 그 가운데 이 연구에서 대상이 되는 기록관리직도 전문직의 범주 안에 하나의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기록전문직은 상당한 취업 준비의 기간과 강도를 필요로 하는 직군이기도 하다. 기록전문직이라고 하는 직업은 일반적인 학부만 졸업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대학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치거나 학부에서 문헌정보학이나 역사학 전공자들이 해당 교육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받고 기록관리전문요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만 기록전문직으로 진출을 할 수 있다. 기록전문직에 종사하기 위해서 기록관리전문요원으로서의 자격을 얻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해당하는 교육기관을 진학하고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작지 않은 선택이다. 이 직업을 얻기 위해 인생에서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행위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을까? 이러한 의문에서 이 연구는 시작한다. 이들을 매혹시켰던 것들은 다음과 같다.

“그 때만해도 이 기록연구사 그니까 대학원을 나와서 뭔가 이제 공공기관에 바로 취직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고 그리고 (대학원에)가면 무조건 6급 상당이다. 라는 그런 소문이 파다했어요.(웃음) 어서 그런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중략) 사실은 뭐 아키비스트에 대한 매력이 있었던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근데 이 공부를 하고 내가 이 직업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6급 상당에 공무원이라는 그런 게 따라 붙는 다는 생각에 아 이걸 꼭 해야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⁶⁾ (해당화)

“내가 복학하고 이러면서 2005년 7월에 우리나라에 기록연구직이 생겨갖

6) 녹취문은 심층면담의 생생함을 담고자 구어체 표현 그대로 표기하였다. 단, 독자들의 가독성을 고려하여 현장감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정하였다. 연구자는 경우에 따라 의미가 생략된 부분은 대화의 맥락을 파악하여 괄호 안에 설명을 덧붙였다.

고 그 1기 선배들이 다 취직을 했죠. 그래갖고 그 때 이제 소문이 난 게 기록관리, 기록연구사 되는데 공무원 되는데 쉬운 말로 6급 공무원 되는데 경쟁률이 1대1이 안 됐다. 이런 소문이 엄청나게 이쪽에 났었어요. 그리고 나도 아 그러면 취직도 잘 되고 내가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서 기록관리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삼백초)

“그냥 막연히.. 그 때는 잘 몰랐죠. 솔직히 기록학이라는 게 뭔지. 그냥 공공기록물 정도? 그렇게 알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공무원 취업이 사서보다 더 쉽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 때 초창기라서, 그리고 급도 6급 상당이라는 게 그런 게 좀 솔깃했어요.” (민들레)

대학 졸업을 앞둔 참여자들의 당시 상황은 계속되는 경제 불황과 청년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었고, 앞으로의 진로나 취업에 고민이 많은 차나였다. 우연히 기록관리학 개론 수업이나 지인에게 아키비스트라는 직업을 접하게 된다. 이들은 기록전문직이 지닌 외연에 솔깃하게 되는데, 6급 상당의 공무원에 해당하는 기록전문직은 경제적인 보상과 사회적 인정이 분명해 보였기 때문이다. 비교적 높은 직급의 공무원으로 진출을 할 수 있고, 진입장벽이 낮아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는 경로라는 판단은 기록관리 대학원 내지는 교육원으로 이끄는 주요한 동기가 되었다. 그리고 참여자들은 기록전문직에서 전문직으로서의 면모를 발견하게 된다. 이들은 전문직에 종사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고, 자아개발의 일환이자 전문직정체성을 얻기 위해 기록관리 분야로의 진출을 결심한다.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라는 그 단어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전문요원.. ‘아 나는 전문가가 될 수 있겠구나.’ 내 직함을 걸고 전문가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서 기록관리 대학원에 가야겠다. 딱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금낭화)

“자기개발이라고 할까요? 직군 자체가 전문직이잖아요. 전문직입장의 정체성이라고 그럴까? 나의 정체성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당시 현장에서 조금만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하게 되면 기록관리

업무로 특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노루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해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배치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금낭화는 법적 명칭인 기록물관리전문요원에서 전문직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상상하게 되었다. 명칭에서 공적인 기록에 접근하고,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지위와 특권을 가지고 자주적으로 일하는 전문가의 이미지를 떠올린 것이다. 그는 기록전문직을 자신의 전문가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 직업으로 생각하였다. 새로운 전문직은 전문서비스의 사회적 수요와 사회의 새로운 관할영역(jurisdiction)의 발생으로 출현한다(이소연, 2011). 노루귀는 공공기관의 역사연구 분야에 종사하면서 기관이 연구 자료의 영구적 보존방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기록관리에 대한 지식과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전문분야로 특화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고, 기록관리가 우리 사회의 전문분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보았다. 이 계기가 기록관리 교육기관 진학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들의 학문선택 동기에는 기록전문직을 통해 전문직 정체성의 형성과 자기개발의 욕구가 내재되어 있다.

참여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들은 기록전문직이 갖고 있는 외적인 조건에 반해서 이 직업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기록전문직이 지니고 있는 전반적인 외형은 이들에게 대학원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을 투입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감당할 만한 요소들로 형성되어 있다. 기록전문직은 경제적인 보상이나 사회의 인정, 자기개발 내지는 자아실현의 가능성이 분명해 보였기 때문이다.

4.1.2 아키비스트의 사회적 역할

“‘아키비스트의 역할’은 시대와 기록사상가들에 따라 변화했다. 젠킨슨(Jenkinson)은 소극적인 기록보관자로서 역사가의 시녀로, 쉘렌버그(Schellenberg)는 행정의 효율을 최고의 가치로 행정적 기록의 관리자로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현대적인 패러다임 속에서 아키비스트는 능동적이고 지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는 문화적 기억의 창작자이자 관리

인으로서의 역할을 도전받고 있다. 행정적인 영역에만 치중되었던 아키비스트의 역할은 문화적인 선택과 큐레이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권한을 확보하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다. 아카이브 내에서의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확장함으로써, 현대적인 패러다임은 아키비스트의 업무에서 지적인 참여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늘어난 지적인 참여는 보존기록이 정체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쟁적인 주장을 형성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Ridener, 2009)

현대의 아키비스트는 점차 능동적인 수행자로 변모하고 있다. 아키비스트는 국민의 알권리의 토대가 되는 국가 업무활동의 증거를 수호하여 정부기관 혹은 사회 지도층의 설명책임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다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핵심적인 증거를 제공한다. 그리고 기록이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선별되어 집단적 기억을 형성하고, 보존되어 기록문화유산으로 후대에 전승되는데 기여한다. 역사적 기록을 통해 사회의 다양성을 제시하고, 사회 정의의 증진을 포함하는 민주적 원칙들을 강화시키거나 때로는 약화시키는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다(Jimerson, 2009). 이처럼 아키비스트가 기록을 수집, 평가, 보존하는 직업 행위는 사회에 의미 있는 일로 여겨진다. 시민들의 법적, 행정적, 재정적, 문화적 이익을 보장하고, 우리 사회의 모습을 아카이브에 담아 미래세대에게 전승함으로써 사회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참여자들은 기록관리를 접하면서 아키비스트의 사회적 역할에 눈을 뜨게 된다. 시민들의 이익을 보장하고, 기록을 수호하여 후대에 전승하는 아키비스트는 겉으로 보기에 그럴 듯 해 보이는 직업인 것이다. 아키비스트의 사회적 역할은 참여자들에게 흥미를 유발하는 지점이다.

"내가 역사를 직접 기술하는 건 아니지만 역사의 현장에서 내가 그 역사 기록을 후대에 전승한다는 그 표현이 너무 멋진 거예요. 또 영화 '냉정과 열정사이'에서 그 남자주인공이 미술복원 그림 복원하는 사람이거든요. 거기서 그림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직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원가들.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설명할 때 기록물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흔한 건데도 그게 되게 확 와 닿았어요." (금낭화)

“기록관리학입문이라고 그게 전공 선택과목으로 신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 수업을 들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뭔가 이 기록이 별 거 아닌 것 같은 이 기록이 이제 역사가 되고 이걸 또 관리하는 직업이 아키비스트라는 직업이 있다는 걸 듣고 내가 이걸 너무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관심을 갖게 됐죠.” (해당화)

“되게 사학과 출신들이 훗날만한 기록이 남겨져서 역사가 되고 약간 그런 뭔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혹 했던 것 같아요. 약간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막 사관이랑 비유하고 이런 것들이 멋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문주란)

어찌 보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은 기록이 아키비스트의 손길로 생명력을 얻어 역사가 되고, 역사 현장에 함께 하는 아키비스트는 그럴 듯 해 보인다. 무엇인가 의미 있어 보이는 특성은 참여자들의 관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 기록전문직은 현대의 사관으로 비유되기도 한다. 조선시대의 사관의 기록정신에서 비롯된 조선왕조실록은 현재 문화유산으로 남아 조선왕조의 역사와 문화를 가장 잘 나타내는 사료이다. 이처럼 미래세대에게 위대한 문화유산이 전승되도록 돕는 기록전문직이라는 직업은 세상에 도움이 되고, 의미 있는 직업처럼 보이게 된다. 아키비스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관심에서 참여자들은 기록관리 분야에 발을 디디게 된다.

한편, 본래 세상에 기여하고 싶은 가치관을 지녔던 참여자들도 존재한다. 이들은 기록전문직으로 자신의 가치관을 실현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에 기록관리 분야로 진입하게 되었다. 다 같이 잘 사는 세상, 조금 더 민주화된 사회, 우리 사회가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록을 남기고 싶은 뜻과 기록관리의 가치가 유사했기 때문이다. 기록관리는 이들에게 가치관을 실현 할 수 있는 도구이자 개인의 신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이론적 뒷받침이 되는 학문이었다.

“아직 다 아시겠지만 우리 사회가 민주화 된, 완벽한 민주화된 사회가 아

니기때문에 그런 운동을 하고 싶었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었구요. (중략) 그니까 뭐 좀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게 저의 목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뭐 누구 랑도 소통할 수 있는 사회. 그리고 너무 경쟁하지 않고 좀 천천히 가더라도 같이 갈 수 있는 사회. 뭐 그런 걸 만드는 게 나의 두루뭉술한 그런 사명 같은 것이었는데, 기록관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 라는 거를 알게 됐죠.” (팽이밥)

“기록관리가 어떤 절차적 민주주의에 하나인 도구적 장치가 되고 행정의 투명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고 그 다음에 예전에 제가 하고 싶었던 것과 이제 가치 추구하는 가치 자체가 같다. 라는 거를 알게 되서 당시에 다니고 있던 회사도 아예 때려치우고 공부를 전업학생으로 시작을 하게 됐죠.” (팽이밥)

대학시절, 팽이밥은 시민사회운동에 관심이 많았다. 채용 공고에서 우연히 보게 된 기록연구사라는 직업은 시민단체활동에서 알게 된 기록관리관련 직종이었다. 삶의 궤적에 기록관리가 있었고, 기록관리가 자신의 사명과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된다. 기록관리는 국민 혹은 수평적인 다른 기관에게 감시하는 사회 혁신의 수단으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한다. 이를 통해 조직과 사회의 자정기능을 높임으로서 공공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신뢰사회의 실현이 가능해진다(오항녕, 2005). 기록관리의 행위주체인 기록전문직도 투명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기록전문직은 팽이밥이 바라던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얼마간의 역할을 함께 하는 직업이었다.

“이제 기록관리라는게 기록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경험, 역사, 이런 것들을 보존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좋은 학문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한 번 이거 공부를 해봐도 좋겠다 싶었어요.” (산수국)

“기록학을 통해서 이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라든지 갈등들 노동운동이라든지 어떤 영역에서의 운동들을 국가의 기록은 국가기록관리 체제 안에서 잘 보존이 되겠지만 이런 소외계층 내지는 진보적인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기록을 관리하는 곳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기록학을 통해서 노동운동이라든지 시민운동이라든지 NGO라든지 이런 기록들을 어떻게 좀 잘 보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죠.” (산수국)

산수국은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진보적 가치에 대해 고민하며 대학생활을 보냈다. 그는 기록관리를 접하면서, 국가나 사회에 의해 조명되지 않지만 묵묵히 사회 발전을 위해 일하는 주체들의 사회활동을 기록으로 남기고 잘 보존하고 싶은 마음에 대학원 진학을 결심하였다. 국가가 주목하지 않는 소외계층, 노동운동, 시민단체의 활동도 우리 사회의 한 측면이자, 기록되어 보존되지 않는다면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아키비스트의 핵심적 임무는 시민사회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생성된 기록을 선별하여 집단적 기억을 형성하고, 보존하여 기록문화유산으로 후대에 전승하는 것이다. 권력층의 일방적인 기록만을 남기는 것이 아닌, 보다 다양한 사회계층의 목소리를 수집하고 보존(이호신, 2016)하여 우리시대의 다양성을 인류의 유산으로 남기는 것이다. 산수국의 바람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포착하여 보존하고 제시하는 문화적 기획자로서의 아키비스트 역할과 일치한다. 그에게 기록전문직은 자신이 고민해 온 진보적인 가치에 대한 해답인 동시에 자신에게 충실한 길이었다.

Richard Cox(1995)는 아키비스트의 직업적 소명⁷⁾에 대해, 기관을 대표하여 기록물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보존하여 후에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나아가서는 사회에 봉사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궁극적으로 기록으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아키비스트의 사회적 역할은 그럴듯한 명분으로 느껴지게 하고, 참여자들이 기록학으로 진입하는데 기록관리, 기록전문직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한 요인이다. 그리고 아키비스트의 사회적 역할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싶은 개인의 신념과 부합하기도 한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가치관에 걸맞은 학문이자, 자신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도구로 확신하게 되면서,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다. 아키비스

7) 소명(calling)은 신의 부름을 받은 일이라는 의미로 종교적 개념으로 사용되었으나, 차츰 일반화되어 개인적,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발견하여 그것에 헌신하는 것으로 발전했다(한국심리학회, 2014).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소명은 일반화된 의미에 가까운 용어로서 사용하였다.

트의 사회적 역할은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개인의 가치관과 일치하여 내면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요인으로, 기록전문직을 선택하는 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4.1.3 청운의 꿈

기록전문직을 동경하는 마음에서 출발한 참여자들은 대학원 혹은 교육원 과정에서 기록전문직에 대한 동경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동경에서 비롯한 참여자들의 관심은 점차 아카이브나 기록 평가론을 공부하면서 흥미와 이해가 점점 깊어졌다. ‘어떤 기록을 평가하여 남길 것이냐’를 고민하게 되고, 기록의 의미와 사회 안에서 기록이 권력으로 작용하는 것을 공부하면서 기록의 힘과 사회 안에서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깨닫고, 필요성을 확신하게 된다.

“하워드 진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배 권력은 기록을 통해서 자기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근데 이제 뭐 노동자라든지 성소수자라든지 이런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 자기기록을 보존할 때가 없다. 그게 기록이 어떤 하나의 권력이다.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서 기록이 어떻게 우리사회에 우리 사회의 분야에서 어떤 기록을 평가해서 남길 것이냐에 대한 어떤 기록평가론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산수국)

“기록학 이론 뭐 미시사가 역사학에서 미시사가 나오면서 기록을 평가하는 게 어떻게 바뀌어졌고 뭐 이런 것들. 역사학을 하신 분들이 연구했던 그런 기록학 이론들에 되게 흥미를 많이 느꼈죠.” (삼백초)

“기록관리는 제도를 바꿀 수가 있고 사람들의 언행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되게 거시적인 차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미시적인 차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그러한 사회적 역할이 큰 분야다. 라고 생각을 했었죠.” (고란초)

미국의 역사학자 하워드 진(Howard Zinn)은 1970년 SAA 연례회의에서

우리 사회의 보존기록은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했다(최정은, 2011). 하워드 진과 같은 급진적인 역사가들의 문제제기로 보통 사람들, 역사의 주변부로 밀려난 사람들의 목소리를 기록으로 수집하고 보존하는 적극적인 아키비스트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시작 된 것이다 (Jimerson, 2009). 참여자들은 기록평가를 공부하면서, 기록이 또 하나의 권력으로 역사에 주목받지 못하는 사회 소수자들의 목소리도 보존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기록전문직이 공격적인 수집자가 되어, 아카이브가 사회에 대한 기록을 포괄적으로 보유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모습을 담는 아카이브의 사회적 기능을 이해하게 된다. 교육을 통해 점차 기록관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이 자리하고, 기록을 관리하는 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내지는 기록의 힘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록학을 소통에 관한 학문이라고 보통 정의를 하는데 그니까 기록을 통해서 동시대의 기록을 통해서 동시적으로도 같은 세대 에서 기록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 거죠. 정부와 시민사회가 소통을 하고, 또 시민과 시민 간에 기록을 통해 소통을 하고 그리고 정부끼리도 기록을 통해 소통을 하는 거고 통시적으로도 과거와 현재, 현재와 미래가 다 결국 기록을 통해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기록학을 소통에 관한 학문이다. 라고 정의를 하죠." (팽이밥)

팽이밥은 기록을 시간과 공간, 세대 간을 넘나드는 소통의 매개체로, 기록학을 소통에 관한 학문으로 정의한다. 이처럼 사회 소통 기능의 기록을 관리하는 행위는 민주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보공개, 거버넌스(governance)를 실현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관에서 업무의 증거로서 역할을 하는 기록은 어떠한 배경에서 정책이 형성되고 작용되는지 기록을 통해 재현이 가능하도록 보존되어야 한다. 기록관리의 사회적 역할은, 이렇게 생산된 기록을 잘 관리하여 후대에 전승하는 것 외에도 각 정부기관 행정을 투명하게 하는 것도 포함한다. 기록을 통해 각 기관에 부과된 설명책임의무(Accountability)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은 제대로 된 기록관리를 통해 알권리를 실현할 수 있으며, 그 관리 현황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하고 제대로

기록을 관리할 것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다.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기록관리의 효용가치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기록관리에 대한 지식과 관점이 형성된다.

한편, 학문과정에서는 기록공동체 활동에서 공동체의 연대를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기도 한다. 연대의 사전적 정의는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기록전문가윤리강령의 제10강⁸⁾에서는 기록관리 분야의 발전을 위해 기록전문가들 간의 협력과 유관 전문분야의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증진해야하는 기록전문직의 책무를 강조한다.

“다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누군가 나서야 되는데 나설 사람은 없었고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내 개인적인 판단에서도 그런 정책적 흐름이 봤을 때는 기록관리 우리나라의 체제에 발전을 역행하는 문제라고 저도 문제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막아내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또 저뿐 만 아니라 또 그런 생각들 많이 했던 기록공동체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명분이라든지 그런 역할이라든지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산수국)

팽이밥⁹⁾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을 기록학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다. 산수국¹⁰⁾은 기록학의 사회적 의미, 기록전문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민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사

8) 제10강 (중략) 기록전문가는 동료들과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기록관리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한 건설적인 토론을 보장하되 불필요한 갈등은 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유관 전문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기록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유산의 보존과 이용을 발전시켜야 한다(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14).

9)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게 저의 목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뭐 누구랑도 소통할 수 있는 사회. 그리고 너무 경쟁하지 않고 좀 천천히 가더라도 같이 갈 수 있는 사회. 뭐 그런 걸 만드는 게 나의 두루뭉술한 그런 사명 같은 것이었어요.”(팽이밥)

10) “기록학을 공부하는 선생님이라든지 학생들도 그렇고 되게 좀 사회에서의 기록전문가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도움이 될 것인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사람을 대학원 시절에 많이 만난 것 같아요. 아 뭐 나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걸 확인 받은 과정도 있었죠. (중략)이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역할을 이바지를 해야겠다. 라는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모여 있는 곳이구나라는 점이 좋았던 거죠.”(산수국)

회적인 해결 방법을 고심하는 동료들 다수 활동하는 기록공동체에 대해 알게 되었다. 투명성, 설명책임성은 기록학의 대표적인 사회적 의의이자 효용이다. 사회적 문제를 기록학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해결방법을 시사하는 것은 기록학을 공부하는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이다. 기록전문직은 2010년 행정안전부의 기록관리 절차 간소화, 대통령 기록관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의 위험이 있는 인사 강행, 정치와 연관된 공공기록의 유출과 같이 퇴행적인 기록관리 제도의 변화나 사회·정치 분야에서 기록이 중심이 되는 논란을 마주하였다. 이 때 학회와 기록전문가 단체는 함께 연대하여 기록학 관점으로 전문가 입장을 표명하였다. 학문과정에서 기록전문직은 그 문제를 기록학의 관점에서 토론하고 해결점을 모색하는 공동체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에서는 개인이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전문성을 확보한 공동체의 연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기관에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그 인맥들이 조금 도움이 되요. 그 당시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 중앙부처에 있는 연구사들이 거의 다 (기록관리)1세대이기 때문에 일을 할 때 조금 많이 도움을 받기도 하고 내가 조금 무리한 걸 부탁을 해도 서로 고생해서 했던 걸 알기 때문에 좀 약간 실질적으로 이제 와서 지금 단계에서 서로가 좀 더 많이 도움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저는 해요.” (문주란)

“업무를 하면서도 다 물어보고 도움 받고 그 때 있던 사람들. (중략) 연구사 처음 났을 때는 예비학교 이런데서 강의 같은 거 많이 했거든요. 그 때도 항상 제일 중요한건 기록관리하는 사람들 제일 중요한 거는 기록인들과 교류하고 그런 활동하고 이게 진짜 도움이 된다. 진짜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삼백초)

“그 때(2010년에 조직된 기록관리현안공동대책위원회) 많은 기록인들 더 많이 알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림으로써 지금 제가 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런 제가 속한 기관을 넘어서 다른 기관에 있는 전문요원, 기록 전문가들과 같이 뭔가 고민도 하고 뭔가 협의도하고 그럴 수 있게 된 밑바탕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제 개인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됐었죠. (산수국)

더불어 기록공동체와 연대하면서 인적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이러한 경험은 훗날 기록현장에서 기록전문직으로 근무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상호간의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로 발전하고, 다른 기관에 종사하는 기록전문직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가는데 밑거름이 된다.

기록학 교육에서 참여자들은 사회의 소수자의 기록을 하고 보존해야하는 필요성이나, 역사적 관점에서 기록의 결락을 보완하는 아카이브의 기능에 흥미를 느끼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기록공동체와 연대하는 경험에서는 연대를 통해 기록공동체 집단이 우리 사회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게 된다. 더 나은 사회 위해 개인의 혼자 힘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모색하기에는 부족하지만 전문성을 가진 공동체가 연대하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기록관련 사회적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함으로써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거나 퇴행적인 기록관리 제도를 비판하는 모습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기록공동체의 연대가 가진 힘을 알게 되었다. 학문과정에서는 기록학 분야에 대한 자기 확신과 기록전문직에 대한 동경이 강화되어 청운(靑雲)의 꿈을 품게 된다.

4.2 기록관리 황무지

앞서 참여자들은 전문직으로서의 외연이나 아키비스트라고 하는 일이 지닌 사회적 가치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전문교육기관으로 진학하였다. 기록과 기록관리, 아카이브, 기록전문직, 기록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사회 안에서 기록관리가 지니는 가치나 필요성을 교육받음으로써 기록전문직에 대한 열망이 강화되고, 고무된 상태에서 청운(靑雲)의 꿈을 안고, 기록현장으로 진입을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부딪히게 되는 내용들은 학교에서 배우고, 본인들이 동경으로 품었던 세상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이들을 중심으로 기록전문직이 겪게 되는 기록관리 황무지에서의 경험은 무엇인지 상술해 보도록 하겠다. 이 장을 구성하는 ‘현실의 벽’에서는 기록전문직이 기록현장에서 겪게 되는 불만족의 요인들을 기술하였고, ‘정체성에 혼란’에서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로 인해 기록전문직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갈등과 관련한 이야기를 기술하였다.

4.2.1 현실의 벽

기록학 교육과정에서 참여자들은 보다 능동적인 기록전문가를 꿈꿨다. 점차 되고자 하는 기록전문가의 상과 목표 의식이 뚜렷해진 것이다. 다양한 기록의 유형과 기록관리가 진입할 수 있는 사회의 다양한 영역을 알게 되었다. 시민단체, 공연·예술 분야에서 특정 기록을 다루는 아키비스트가 되고 싶었지만 현실은 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을 만한 기록현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아트아카이브에서 아트아키비스트가 되고 싶었어요. 공연·예술 기록을 논문도 그 쪽으로 썼고 근데 이렇게 그 쪽으로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자리가 없으니까? 교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일자리가 없는데 네가 만들어서 갈래? 수요는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 쪽이 되게 하고 싶어서 논문도 쓰고 싶어서 논문에도 도움 되게 계속 공연·예술 관련된 거를 좀 많이 보러 다녔어요.” (금낭화)

금남화는 아트아카이브에서 근무하고 싶었고, 학문 과정에서도 공연 예술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키워갔다. 학위논문도 아트아카이브 분야로 썼지만 아트아키비스트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찾기는 어려웠다고 한다. 금남화의 관심은 문화적인 기록을 예술과 어떻게 접목시킬 것 인지와 관련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문화예술기관에서 아키비스트를 채용하는 사례는 찾기 어려웠고, 차선책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 공공기관이었다.

“애초에는 뭔가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노동운동이라든지 어떤 진보적인 단체 영역 안에서 기록관리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공부를 했는데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하는 이유는 사실 단순해요. 학자금 대출도 갚고 학자금 대출도 갚고 돈이 좀 필요 돈을 좀 그래도 벌어야겠다. 싶은 생각에 했던 건데 이게 어느새 5년이 되버린 거죠.” (산수국)

“사진기록으로 계속 공부를 해왔죠. 하다가 일도 이제 그 쪽에서 하구요. 근데 일종의 이것도 좀 현실과 타협을 했죠. 경제적인 문제죠. 그 연구소도 이른바 정규직으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밥벌이는 알아서 찾아 먹어야 되는 프로젝트 같은 거 수행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나이가 많은 상황이라서 거기에 좀 흔들렸다고 봐야죠.” (팽이밥)

바라던 분야의 아키비스트로 채용이 되더라도 또 다른 문제에 놓이게 된다. 과거 아트아카이브에서 근무했던 팽이밥은 원하던 일을 했지만, 비정규직으로 경제적인 문제와 갈등하게 됐다. 결국 타협점으로 선택한 것은 공공기관으로의 이직이었다고 한다. 현재 아카이브와 관련되는 직종은 공공기관으로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예술 분야에서 많은 작가들이 창작에 아카이브라는 개념을 차용하는 현상이 대두되고(장지영, 2017), 그밖에 시민단체에서도 단체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활동을 알리기 위해 아카이브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참여자들이 원하는 분야로 진출할 수 없는 상황은 새로운 흐름을 수용하기에 우리의 기록관리 현장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도 대부분은 기록전문직으로서 부푼 마음으로 공공기관 기록현장에 갔다. 하지만 그들이 맞닥뜨리고 부딪혀야 되는 현실은 학교에서 배우고 책에

서 보는 이론적인 것과는 사뭇 다른 현장이었다. 노루귀는 그 현장을 기록관리 황무지로 표현하였다.

“기록관리직으로 그 다음에 초에 그 ◇◇에 처음에 근무했을 때 하긴 그 때 쇼크가 컸어요. (중략) 현장에 왔는데 엉망이에요. 엉망이 정말 현장에 저는 그 때만해도 ◇◇에 기록관리 전문요원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들어갔단 말이죠? (중략) 문제는 현장의 기록관리 인식이 없다보니까 간부나 관심들도 상당히 없었고 그렇게 얘기했죠. 대놓고 ‘여기서 기록관리 할 게 그다지 없을 거야. 여기는 뭐 저기 국가기록원 이런 데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기록물 폐기하고 뭐 여기 남을게 없어 없고 여기서 잘 자리를 잡고 하려면 기획력 있는 다른 업무를 해야 될 거야.’ 그런 거를 요구를 많이 했죠. 심지어는 거기 간부들 회의하는데 지나가다 정말 쇼킹한 얘기는 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기록관리 업무 때문에 판결 할 수가 없어.’ 아니 기록관리 업무가 내 주 업무인데. 기록관리 업무 때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어 안타깝다는 이게 된 얘기야. 이제.. 그래서 실제로 다른 업무를 했어요.” (노루귀)

공공기관에 채용되면서 노루귀는 해당 기관의 중요기록물은 무엇일지를 고민하고, 기관과 관련 된 사회,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록부터 제대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그러나 현장은 생각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역사적 ·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기록물은 기관에 존재하지 않았고, 기록을 보존할 만한 정식 서고도 없었으며 가장 큰 문제는 현장에 기록관리를 해야 한다는 직원들 간의 인식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록관리 업무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어 이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간부들의 의식은 기록전문직을 좌절하게 만드는 가장 커다란 벽이었다. 기관의 구성원 중 정책결정자나 기관장의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은 특히 중요하다. 실제로 유현경과 김수정(2016)의 연구에서도 나타나듯이, 기록전문직들은 직무불만족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기관장의 인식개선을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다. 기관장은 예산배정, 업무분장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기록관리 관련 예산이 삭감되거나 기록전문직을 다른 업무에 배정한다면 이를 막기 힘들 뿐만 아니

라 되돌리기는 더욱 힘들다. 노루귀의 사례와 같이 기록전문직이 기록관리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도록 강제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유현경, 김수정, 2016). 기록이 관리되어야 하는 일인가에 대해 기관장뿐만 아니라, 기록생산자들에게도 낮은 이야기라는 점을 다음의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

“제가 시험보고 나서 딱 들어왔을 때 이제 막 교육을 받거든요. (중략) 그냥 일반 행정직들도 그 때 교육에 와갖고 이제 같이 어울리잖아요. 근데 나도 연구산데 나는 그냥 나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환경연구사 이런 분들만 되게 대단하게 보더라구요. 그냥 일반 행정직인 신규직원들이 ‘어 연구사예요? 이러면서 우와. 환경연구사 우와.’ 막 이런 식으로 저도 기록연구산데..(웃음) 저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어? 연구사예요? 이런 게 없더라구요. (중략) 근데 기록연구사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드나봐요. 그니까 기록이라는 그 단어자체가 어느 누구나 만드는 거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해당화)

“문제라는 건 아직도 뭐 그래도 국가기록원 조직도 커지도 했지만 사실은 기록관리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삼백초)

공공기관에 채용이 되고 신입직원 교육에서 해당화는 신입직원들이 같은 연구직렬에 속하는 환경연구사와 기록연구사를 다르게 인식하는 것을 느꼈다. 환경연구사에게는 중요한 분야에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수긍과 호기심을 보이는 반면 기록연구사인 자신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경 분야와는 달리, 기록관리 분야는 학문적 뒷받침이 수반되고, 전문적인 손길이 필요한 일인가에 대한 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기관의 간부, 나아가 모든 직원들 간에 기록관리에 대한 합의 혹은 인식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기록전문직에게 족쇄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기록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나 거부감은 기관에 따라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직급에 따라 하는 일이 정해져 있는 관료제 성격이 짙은

기관은 기록관리 업무를 “기능직이나 9급 아무나 하는 별 필요 없는 업무”로 인식하는 것이다. 공공기록물관리법이 생기기 이전 문서관리는 기관의 제일 말단 직원이 해오던 관례였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군청이나 시청에 첫 직원으로 가면 다른 사람들은 다 9급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기록연구사는 어쨌든 7급이나 6급 정도의 수준, 임금으로 따지자면 그 정도의 임금을 받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항의를 옛날 기능직이 했던 일을 했던 것 같은데 재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아? 이런 오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은 편하진 않죠.” (삼백초)

“이전에 있던 기관은 옛날 행정 9급이나 기능직들이 기록물관리 업무를 해왔었기 때문에 그런 기능직이나 9급 아무나 하는 별 필요도 없는 업무라는 인식이 강해서 오히려 기록관리에 더 장애가 있었던 거고, 여기는 아예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래도 기록물관리 경력이 4년 넘고 대학원도 나오고 했으니까 그 전문가가 오니까 제 얘기를 조금 귀 기울여 주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들이 거부감이 없어요. 제가 문서편철 이렇게 두껍게 해 놓은 걸 보고 ‘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니까 자기네는 몰라서 그랬으니까 앞으로 가르쳐 달라는 표현을 많이 써서 좀 많이 놀랐어요. 근데 전 직장은 거부감이 되게 강해요. 왜냐면은 기능직이나 하던 뭐 그런 업무인데 왜 우리가 이제 와서 해야 되느냐. 이런 게 있는데 좀 그거에는 좀 많이 놀랐어요.” (금낭화)

기록관리를 실속 없는 업무로 인식하는 선입견은 기록관리의 효용이나 필요성을 받아들이는 데 장애가 된다. 이는 기록관리를 통한 업무효율 증대, 기관 업무활동의 대내외적 설명책임성 확보, 업무의 절차적 투명성 증대 등의 기록관리의 기능 도입 대해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입견이 형성되지 않은 기관에서는 기록관리의 기능과 필요성에 대해 인지할 여지가 있음을 금낭화의 사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금낭화가 이직한 기관은 그가 입사하기 전까지 법률에서 정한 절차대로 기록물을 관리하지 않았다. 기존에 기록전문직이 제대로 알려주지만 한다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는 기관인 것이다. 따라서 기록관리에 대한 저조한 인식은 기록 관리가 기관에서 실속 없는 일이라는 선입견이 내재한 기관의 문화가 장벽으로 가로막고 있기 때문임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기관의 기록전문직이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관 구성원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록전문직이 겪는 현실의 벽은 공무원이라고 하는 직업이 가지는 제도적인 한계와 부딪히게 되면서 발생한다. 공무원 조직의 관료적 행태에서 기록전문직은 구성원들에게 존중 내지는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고 있다. 공무원 조직의 규칙과 규제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만을 규정하거나, 최소한의 행동을 규정한다. 구성원들은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최소한의 수준만을 채우는 행동을 보이거나, 규칙과 규정에 맹목적인 복종으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와 똑같은 대응을 반복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최창현, 2014). 이러한 관료적 행태 속에서 기록관리 업무는 법률에 정해져 있는 일은 용인이 되는 반면, 정해져 있지 않은 업무는 제재가 가해진다. 이 때에 더 나은 기록관, 기록관리를 위한 개인의 노력이나 의지는 무용지물로 느껴지기 쉽다.

“법에서 뭐 생산현황 통보는 언제까지 뭐 이런 딱딱 정해진 일은 그냥 제가 거기 스케줄에 맞춰서 하면 위에서 뭐라고 하진 않는데, 아까 말씀드린 전시업무라든지 법에 없는 업무 이외의 것들을 하겠다고 하면 많이 제동이 걸리는, 제재를 하는 것 같아요.” (민들레)

“현재 기록관의 역할이 기존의 공공기관에서 문서과의 역할 했던 거랑 별 차이가 그냥 기록관의 역할과 기능이 더 커지지 않으니까 단순히 문서처리하고 폐기만 하는 이런 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기록관리 법상에서도 좀 기록관의 역할을 지위를 좀 높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더 기능을 주는 거죠. 지금은 딱 국한 되어 있잖아요. (중략) ‘너희는 RM이야 RM이니까 준현용관리만 잘 하면 돼.’ 이런 식으로 부여 받으니까 기존의 문서과에서 했던 역할과 다르지가 않은 거죠. 그니까 이제 ‘왜 이런 일을 대학원에서 공부한 사람이 이걸 해야 해.’ 라는 의문도 들을 수밖에 없고 기존에 너네 옛날에 이제 갓 들어온 직원 아니면 별로 일 하기 싫었던 직원들이 하는 일 하니까 ‘너는 별로 안 중

요한 거잖아.’ 하면서 이 전문요원들한테 다른 업무들을 ‘너 그거 뭐 대충하면 되잖아?’ 뭐 이렇게 해서 다른 업무가 막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죠.” (산수국)

예를 들어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8장 기록물의 공개·열람 및 활용은 보존기록의 활용을 위한 일반적인 지침을 안내하고 기록물의 공개와 열람에 관한 기능적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단 제38조의2에는 예외적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한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록물을 정리(整理)·기술(記述)·편찬하고, 콘텐츠를 구축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라는 좀 더 구체적인 활용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제외한 그 외의 기록관은 다소 제한적인 기록정보서비스만을 행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콘텐츠 구축, 기록전시를 통한 보존기록의 활용과 기록전문직의 능동적인 기록물 수집 업무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기록전문직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한다.

“여기는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어도 중간에 허락을 못 받았어요. 왜냐면은 그걸 하려면 약간 예산이 들것 아니에요. 근데 사실 공공기관에서는 현재는 기록관리쪽에 예산 투자를 하는 거를 좀 꺼려하거든요. 그런 이유에서 결재를 못했으니까 공식적으로 그게 진행되는 사업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행정업무를 하다보니까 기록관리 전반적인 업무도 하니까 아 주민들 수집이라던 지 전시활용 이런 것까지 꿈을 갖게 됐는데, 뭔가 현실하고 안 맞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혼자서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해서 어떻게 보면 기획까지 했다고 해야 되나? 일단 샘플로 이렇게 홈페이지까지지는 만든 상태이긴 해요.” (민들레)

“그냥 하고 싶다. 아 이걸 하면 좋겠구나. 뭐 보람이 되겠구나. 이런데서 시작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니 이렇게 좀 시선도 안 좋고 이 일이나 똑바로 하지.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혼자하기엔 너무나 할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이 평가, 폐기, 뭐 정리 이런

업무를 하면서 그것까지 하려면 저 혼자로는 도저히 못 하고 뭔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일인데 여건이 안 되니까..” (민들레)

올해로 기록전문직으로 6년차인 민들레는 수동적인 기록정보서비스가 아닌 적극적 행태의 기록정보를 서비스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주로 이용자의 요청으로 기록물을 제공하는데, 한편으로는 주 이용자층에게 먼저 다가가 정보를 서비스한다면 이용자에게 도움이 되고 자신에게도 보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주민기록 수집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전시하는 방안을 기획하여 진행하고자 했지만, 기관 간부들의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예산 문제, 주변의 따가운 시선, 기존 기록관리 업무에도 치이는 상황에서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민들레의 바람을 이루기에는 혼자서 극복해야 할 장벽들이 너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치여 기록전문직은 좌절감이나 자신의 직업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업무의욕의 저하로 나타날 수 있다.

기록전문직으로 겪는 또 다른 장벽은 기록전문직에 대한 외부의 시선이다. 이들은 전문직의 외연과 아키비스트의 사회적 역할에 매료되어 기록관리학에 입문하였고, 학문과정에서 기록관리로 공공에 이익이 되는 이 직업의 사회적 역할을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각자가 꿈꾸던 기록전문직이 되기 위해 공부를 꾸준히 하여 기록물관리전문요원 자격을 얻었다. 그러나 공공기관 기록현장에서 자신들은 기록전문직이 아닌 기관에서 익숙한 관습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자, 안 해도 되는 일을 귀찮게 시키는 사람 혹은 조직의 막내였다.

“행정직들한테 자기일이 다 이렇게 있는데 안 해도 되는 일을 시키는 사람이에요. 사실 기록연구사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기록물 정리해서 이관이라는 작업을 내가 한 번도 안했는데 재가 오더니 왜 내가 바빠 죽겠는데 저걸 시키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일단 그것도 그렇고, 정보공개를 해도 계속 계속 막 독촉하고 해주세요. 우리해야 돼요. 이런 귀찮은 일을 하는.. 그리고 이게 그렇게 행정에 중요한 것도 같지 않은데 재는 자꾸 시키는 사람. 그래서 되게 마찰이 많죠. 사실. 그런 게 되게 힘들어요.” (삼백초)

“조직의 선임자들이 일정한 익숙했던 물, 법규화된 규정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런 걸 바꿔야 된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스럽지 그들은.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건 되게 옛날식으로 옳지 않거나 필요가 없거나 정말 필요한건 안하고 뭐 그런 게 되게 많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우리 주장을 좀 더 가다듬고 관철을 시켜야 되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죠. 절대적인 시간도 꽤 많이 걸리는 일이에요. 한 어떤 선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느 기관에 들어가서 그 기관의 문화까지 바꾸려고 하면 그 기관이 존속했던 만큼 기간이 필요할 거다. 조직이 생긴지 10년 된 기관이면 10년이 필요할 거고 30년 있던 기관이면 30년이 필요할 거다. 그게 정확하진 않겠지만 일리가 있는 표현인 거죠. 그만큼 축적되어온 문화의 시간이란 게 있는 거잖아요.” (고란초)

“그냥 그들이 볼 때는 전문가가 아니라 팀의 막내, 일꾼정도 왜냐면 그들은 법에서 뽑으라하니까 어쩔 수 없이 뽑은 거지 자기네들이 정말 전문가가 필요해서 날 초빙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잡다한 업무를 다 얹어주기도 하는 거죠” (금낭화)

기관에서 기록관리는 본연의 목적이 공유되지 못한 채 오히려 직원들에게 과중한 업무로 인지되고 있기 때문에 기록전문직은 여태껏 해오지 않은 일을 시키는 사람일 뿐이다. 고란초의 말처럼 기관에 기록전문직이 배치되기 전까지 축적되어온 기관의 기록관리문화는 한 순간에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변화에 거부감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구성원들이 지니고 있는 변화에 대한 거부감은 기록전문직과 구성원 간의 마찰로 나타나곤 한다. 때때로 서로 물러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르면 과격한 언쟁이 오가기도 하고, 감정적 대립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에서는 한 번 서고에 기록물을 이관을 받아달라고 막 하는 거예요. 어떤 부서에서. 근데 이미 짝 차갯고 어떻게 받을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갯고 안 된다. 몇 번 얘기했더니 그 쪽에서 화가 나가지고 서고에 불을 질러 버린다고 막 그랬던 적도 있었어

요. 그래서 화내고 싸우고 하다가 전화도 끊고 바들바들 떨고 이랬던 적 있거든요. 그니까는 간혹 그런 직원들이 있어요. 그럴 때 부딪힐 때? 그들을 설득시키고 그런 과정이 좀 힘든 거?” (해당화)

“평가를 했는데 밤에 퇴근해서 집에 있는데 핸드폰으로 되게 막 화를 내면서 저한테 어 그 업무에 대해서 당신이 뭘 아는데 내가 그 업무 담당인데, 왜 맘대로 보류하라고 하냐고 되게 격앙 되가지고 그렇게 따지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냐고.. 근데 저도 솔직히 그 업무에 대해서 모르는 건 맞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걸 보류하고 싶다고 그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도 전문성을 인정을 못 받는 거죠. 자기는 버려야 되니까 해주라고 이렇게 끝까지 밀고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민들레)

“한 명이서 기관 전체에 있는 직원들을 상대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협조가 필요한데 협조가 잘 안 이루어지거든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록관리는 뒷전이라서 자기 업무 다 한 다음에 왜 예를 들어 법정 기한까지 뭘 제출해주라고 했는데 그걸 어기고 막 되게 당연하다는 듯이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런 협조가 잘 안 되는 점.” (민들레)

기록관리 업무로 구성원들과 갈등하게 되는 상황에서 기록전문직은 적지 않은 심리적 고충을 겪는다. 절차를 무시한 막무가내식의 이관 업무의 강요하거나 기록전문직의 정당한 기록관리 업무행위를 묵살하는 경우, 법정기한에 임박해도 기록관리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기록전문직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좌절감을 느낀다. 뿐만 아니라 기관에서 1인 내지는 소수인 기록전문직은 절대 다수의 직원들을 혼자서 힘으로 설득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다.

“우리가 어떤 실력을 보여줌으로써 그런 보수적인 조직문화(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에서 기록관리라는 게 이런 것들이 어 중요하구나라는 어떤 우리가 증명해내는 우리의 역할도 분명히 있기도 하지만 그거를 똑같이만 혼자서 이거를 다 증명해 내야 된다는 게 어렵죠. 어렵죠. 물론

이제 저는 1100명 중에 한 명인 거잖아요. 그거를 1100명한테 어떻게 증명하는 방법은 쉽진 않잖아요.” (산수국)

“혼자라서 어렵죠. 다른 기관에 있는 연구사들, 전문요원들도 다 마찬가지로 일 것 같아요. 혼자라서 힘든 거죠. 다른 직원들이나 상급자들이 봤을 때 기록관리가 별로 뭐 대수롭지 않은 거 일 수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땐 할 게 너무 많거든요. 정말 세세하게 할 게 너무 많고 찾으려면 찾을 수록 할 게 많은 게 이 일인데 그거를 기록관 1인이 혼자서 그 걸 당면했을 때는 큰 부담감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1인 기록관리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산수국)

동시에 복잡다단한 기록관리 프로세스를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는 것에도 그러하다. 기록관리 업무를 앞서 했던 전임자도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내 고민을 같이 나눌 사람이 없다는 거”, “외롭다는 게 정말 큰 어려움이예요”라고 말하는 삼백초의 이야기는 1인 기록관 체제에서 모든 고민을 혼자서 해결해야하는 부담과 스트레스를 보여준다.

“일을 배울 사람이 없다는 게 되게 커요.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게 어떤 직장에 취직해도 하다못해 전임자라도 있잖아요. 전임자라도 있잖아요. 물론 나도 전임자가 있었죠. 기능직아저씨가 하긴 했는데 그건 한 게 아니예요. 그냥 혼자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었고 그리고 내 고민을 같이 나눌 사람이 없다는 거. 그게 되게 큰 어려움이었죠. 외롭다는 게 정말 큰 어려움이예요” (삼백초)

하지만 기록전문직이 기록현장에서 느끼는 불만의 요인이나 심리적 고충은 근무환경에 따라 조금 다른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국가기록원이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종사하는 기록전문직들은 비교적 주도권을 가진 상황에서 기관에서 전문직이라는 인식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다수의 기록전문직으로 구성되어있고 기록관리 부서가 전담으로 존재하며 기록관리 업무가 세분화 되어 있다. 인터뷰에 응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전문직종으로 자율성을 존중받는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비교적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저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직이 일단 크고 업무가 세분화 되어있고 기록관리 하신 분들이 해야 되는 업무가 딱딱딱 있고 그래서 뭐 초반에 중앙부처에 배치되었던 선배들도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주차요원을 한다면 라든가 뭐 행사에 동원된다라든가 뭐 지금도 지자체에서 비일비재해요. 그런 거는 없죠. 그니까 기록관리만 할 수 있는 여건이고 그래서 아주 크게 뭐 괴리감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전문직이기 때문에 좀 Initiative를 가지고 주도 할 수 있는 상황이죠.” (깡이밥)

“우선 문제가 생겼을 때 의논할 수 있다는 사람이 많다는 거? 뭐니 뭐니 해도 어쨌든 같은 직렬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공동대응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다른 부처에 있는 연구사들 보다 심리적인 안정감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문주란)

“교육 같은걸 가더라도 사실 혼자 있으면 교육가기 되게 눈치보이거든요? 기록관리교육이 뭐가 중요한데? 이런 식인데 여기는 근데 기록이 먼저인 어쨌든 그거를 목적으로 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그런 교육을 가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네 좀 많이 달라요. 그니까는 오히려 이런데가 일하기 정말 좋죠. 저희들이 일하기가 눈치 안 봐도 되고 참 좋아요.” (해당화)

실제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록전문직은 전문가로서의 역량강화를 바라며, 이를 위해 전문성 획득과 기록관리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요구한다(박소리 외, 2016). 하지만 1인 기록관에 근무하는 기록전문직은 직무교육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록관리 직무교육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구성원의 눈치를 살피거나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된다. 기록관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근무경험을 모두 보유한 해당화에 따르면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관리에 대한 저조한 인식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감정과 행동들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업무에서 발생한 갈등을 함께 나누는 동료집단의 존재는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고, 기록관 종사자들이 겪는 고립감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종사자들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기록전문직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데 동료집단의 존재와 기록관리를 존중하는 근무 환경의 조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록관리 황무지에서는 기록전문직들이 꿈 꿔던 이상과 판이하게 다른 현실을 ‘현실의 장벽’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들이 느끼는 불만족의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자신이 진출하고 싶은 분야로 갈 수 없는 한계, 기록관리를 실속 없는 업무로 여기는 선입견, 공무원이라고 하는 직업이 지닌 제도적인 한계, 외부에서 기록전문직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들이 기록전문직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에 해당한다. 이것이 청운의 꿈을 품고 들어갔던 기록현장에서 좌절하는 계기나 동기가 된다. 기록현장의 부정적인 요인에서 비롯한 갈등들로 인해 기록전문직은 고립감¹¹⁾의 정서가 심화되고 있다.

4.2.2 공무원과 전문직 사이에서

책에서 배우고, 본인들이 동경으로 품었던 세상과 실제 기록현장이 판이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기록전문직이라 자부하였던 자신의 정체성에 의구심을 갖게 된다. 자신이 기록물 담당 공무원인지, 기록전문가인지 혼란에 빠지는 것이다. 그 혼란은 개인과 기관이 요구하는 아키비스트의 역할이 서로 다른데서 비롯된다. 기관은 기록관리를 행정의 효율을 위한 도구 중 하나로 기록관리와 기록전문직에 대해 어떠한 기대나 바람을 갖지 않는다. 그저 법에 정해진 대로 효율적인 행정의 운영을 위해 때때로 폐기를 잘하고, 일정에 맞춰 업무를 수행하기를 요구한다. 반면에 참여자들은 기록전문직으로서 행정의 효율을 넘어 공공의 이익이 되는 이상을 가지고,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하는 전문가로서 역할을 바란다. 이들에게 아카이브는 기록의 수집, 식별, 보존 과정을 통해 잠재적인 사회 가치를 생산(Jimerson, 2009)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 아키비스트는 사회와 조직의 역동적인 활동 모습을 포착하여, 사회 전반에 걸친 중요한 기록을 보존하고(Cook, 2004: 기록관리학회, 2015에서 재인용)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보존기록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접근을

11) 본 연구에서 고립감은 기록전문직이 느끼는 스트레스, 좌절감, 부담감, 외로움과 같은 심리적 감정상태를 의미한다.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적인 직업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참여자들이 바라는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요구하지 않으며, 기록전문직이 무엇을 하는 직업인지에 대한 몰인식에서 갈등은 비롯된다.

“기록관리를 이야기 했을 때는 좀 뭔가 전문적인 분야고 창의적인 분야도 있잖아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큐멘테이션 어떻게 할 것이냐, 기록화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어떤 그런 부분도 있는데 공공기관에서는 좀 많은 대량의 기록을 혼자서 이제 다뤄야 되니까 효율성 따지게 되고 효율성을 최대의 목표로 매년 반복되는 기록관리 프로세스대로 톱니바퀴처럼 돌다 보니까 기록관리학에서 이야기 했던 그런 전문성 발현 그리고 어떤 창의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좀 기록관리 프로세스 톱니바퀴 그 안에서만 딱 갇혀버린 느낌이 들더라구요. 오히려 전문성을 발현을 하려면 뭔가 기록관리 쪽에서 뭔가 조금씩 나아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좀 드는 느낌은 쳇바퀴 같은 프로세스를 어떻게 잘 빠르게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만 생기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조금 하지 못 하는 그런 ‘어떻게 일을 빨리 잘 쉽게 할 건가’ 이런 부분은 늘어나는데, 기록관리가 ‘아 우리 기관이 몇 년 전에 비교해서 이런 부분에서 좀 잘 됐네.’ 라는 게.. 딱히 막 보이지 않는 이런 거죠.” (산수국)

산수국은 대량기록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기록관리프로세스를 다람쥐 쳇바퀴로 느낀다. 기관의 기록관리 업무는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기록관리프로세스에 맞춰 정해진 때에 업무를 마치면 됐다. 그는 몇 년 전보다 기관의 기록관리가 발전한 모습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며 씁쓸한 기색을 내비쳤다. 자신을 되돌아 봤을 때, 정해진 틀에 맞춰서 빠르게 처리하는 능력은 향상됐으나, 그 이상의 발전이나 전문성을 추구하는 모습은 잘 안보였기 때문이다. 대량의 기록을 혼자서 관리해야 하는 상황은 전문성이나 창의성보다는 효율성을 우선하게 한다. 반복되는 업무에 치여 전문직으로서 자기 고민이나 발전에 소홀해지는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점차 자신감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인다.

“근데 그거(처리과)를 지도를 하기에는 (중략) 약간 힘이 달린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도 있고 내가 나서서 뭐 지도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직이.. 내가 과연 전문직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나는 기록관리 담당이다. 이런 생각도 많이도 들고 들어와서 현실적으로 처음에는 되게 포부도 있고 그런 꿈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그 정해진 틀에서 법대로 이렇게 잘 이루어지면 잘 하는 거고 그런 것 같아서..”(민들레)

그리고 공공기관의 관료주의 문화는 기록전문직이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 중 하나이다. 스스로 전문직이라는 자부심으로 근무한다고 말한 민들레는 자신의 직급으로 기록 생산을 감독하고 지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공공기관의 엄격한 상하구조와 상명하달식의 의사소통 아래에서 기록전문직은 기록생산을 지도하는데 직급상의 제약을 경험하게 된다. 공무원 조직의 관료적인 행태에서 기록전문직은 ‘더 이상 전문직이 아닌 많은 행정직 공무원 중에 기록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닐까’하는 의구심이 생겨난다. 더군다나 정해진 틀에서 법대로 잘 이루어지면 잘 하는 것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기관의 기록관리를 더 잘 하기 위한 고민과 연구는 불필요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게 되는 것이다.

“실제 기록관리를 실물을 보고 할 수 없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나는 9년차 된, 10년차 된 공무원. 그런 회의감은 아주 옛날부터 있었고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나는 전문가라고 기록관리전문가라고 얘기를 하려면 그거를 잊지 않으려면 어쨌든 내 나름대로 해결을 해야겠지만..”(문주란)

“저는 기록관리 되게 하고 싶었고 기록연구사 되고 싶어서 아, 내가 되면 뭔가를 할 수 있고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그런 건 없더라구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말로는 다른 업무 많이 한데, 해도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다른 업무도 하고 기록관리 못할 만큼 그렇게 한 적도 있었고 (중략) 이 정도로 되는 게 없을까? 진짜 되는 게 없더라구요. 그리고 중앙부처와서는 기록관리가 되게 작은 분야구나. 정말 큰 행정에 비해서는 되게 진짜 중요성이 없는 분야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죠.”(삼백초)

문주란도 10여년의 근무기간 동안 하고 싶은 기록관리 업무를 거의 못한 채, 일반 행정직과 다름없는 업무를 지속하면서 오래전부터 기록전문직에 회의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자신을 10년차 공무원으로 정의하지만, 기록전문가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삼백초도 처음에는 기록전문직으로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의지가 강했지만 현실에 무력감을 느끼며 어느 정도 체념한 상태처럼 보인다. 기록전문직이 기관에서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자신의 직업과 업무에서 자신감이 결여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쉽다. 기록전문직은 외부로부터 방해를 받거나 자신의 업무를 온전히 수행하지 못 할 때, 무력감에 빠지고 자신의 정체성에 회의감을 느끼게 된다. 전문가로서 창의성과 자발성을 발현하는 이상적인 아키비스트를 원하지만, 현실에서는 법률에 정해진 대로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고, 조직 내에서 튀지 않기를 요구한다. 이들에게는 공무원 사회의 경직된 조직문화를 내면화 시키고 수용해야하는 문제들 속에 살아가면서 내면의 갈등을 겪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 된다.

“너가 기록연구사, 기록관리 전문요원으로서 활동하는데 주변에 보기에는 행정직이나 일반 직원들 시선에서는 어떻게 보면 문헌정보 사서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전산직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큐레이터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규정이나 프로세스 검토하다 보니까 행정직 같다. 넌 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요. 근데 거기에 대해선 저도 확실히 아직도 물음표예요. 저도 스스로도, 기록관리 전문요원이 그 사람의 전문직으로서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정형화된 실체가 뭐냐? 지금도 물음표예요.” (노루귀)

반복적이고 틀에 갇힌 기록관리 업무와 공무원 사회의 경직된 조직문화는 기록전문직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가중시키는 환경적 요인이다. 하지만 혼란의 밑바탕을 살펴보면, 기록전문직 조차도 전문직으로서 외부에 드러나는 기록전문직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호하게 생각하고 있다. 7여 년 동안 기록전문직에 종사한 노루귀는 기관의 내부구성원에게 기록전문직의 정체성이 사서, 큐레이터, 행정직, 전산직 등의 모습과 유사하지만 특정한 전문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의식하고 있다.

참여자들은 공무원과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다. 갈등은 현실에서 요구하고 있는 아키비스트의 역할과 기록전문직들이 이상적으로 바라는 아키비스트의 역할이 다른데서 기인한다. 참여자들은 전문성과 창의성에 기반한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아키비스트를 지향한다. 하지만 기록관리를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과 현실의 요구는 쉘렌버그가 주장하는 폐기를 잘 하고, 행정의 효율을 높여주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여기서 기록전문직은 자신의 기대가 충족되지 않게 되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에 빠지는 것이다. 정체성 혼란의 기저에는 기록전문직의 모호한 정체성이 내재해 있다. 기록전문직이 자신의 직업정체성에 대해 모호함을 느끼는 현상은 기록학 분야에서 뚜렷한 기록전문직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기록학 이론을 살펴보면, 시대마다 요구한 아키비스트의 역할은 조금씩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근대 이전에는 법적 증거를 보호하는 ‘보관자로서의 아키비스트’, 근대에는 문화기억의 자원으로 역사적 가치를 평가하여, 선별하는 ‘역사가적인 아키비스트’,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는 기억에 의지하고 증거를 보호하는데 활동적인 대리인으로 복합적인 사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중재자로서의 아키비스트’, 현대에는 지역사회 요구, 의사소통 형식, 사회정신에 알맞은 민주화된 아카이브 형성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실천가로서의 아키비스트’의 역할에 주목하였다(Cook, 2013). 지금까지 기록학 이론에서는 아키비스트의 역할 내지 정체성에 대해 거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실제로 이 직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부분들이 이론적으로 취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결국은 이론적인 공백 내지는 부족이 기록전문직들의 아노미(anomie)를 불러오고 있는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아닐까.

4.3 기관에 등지 틀기

기록전문직은 기록관리에 대한 몰이해와 공무원 내부 안에서 기록전문직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은 직업적인 삶에서 갈등을 겪고, 심리적 고립감을 느끼며, 특히 자신이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혼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에서 어떻게든 기록전문직으로 살아 남기위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 기관에 등지 틀기는 ‘이용자의 발견’, ‘법으로 설득하기?’, ‘손에 손잡고’, ‘긍정적인 기억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용자의 발견’, ‘법으로 설득하기?’, ‘손에 손잡고’는 더 이상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업무 행위가 아닌 조직 내에서 존재감을 확보하기 위한 변화의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기록전문직의 행동양식을 기술하였다. ‘긍정적인 기억들’에서는 직업적인 삶에서 만족과 보람의 경험을 통해 이들의 직업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살펴보았다.

4.3.1 이용자의 발견

열악한 현실에 발판을 두고 기록전문직으로서의 역할을 찾기 위해 기록전문직은 자신만의 대처법으로 살아가고 있다. 연구자가 인터뷰 중 기록관리 업무에서 가장 힘을 기울였으면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질문 했을 때, 공통적으로 내부이용자서비스를 답했다. 내부구성원은 요청한 기록을 기록전문직이 즉시 제공하여 업무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았을 때, 기록관리의 필요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체감하는 것이다. 아카이브의 확장서비스는 내부구성원들에게 기록전문직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보여 줄 수 있는 기회이다(Jimerson, 2009). 기록전문직은 이용자서비스로 이용자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보하기 위한 시도 중이다.

“제일 현실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기록을 서비스 하는 거죠.
내부이용자들에게. (중략)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이제 기록연구

사에 대해서 사람이 제일 생각하는 건 내가 필요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바로 갖고 왔다. 그러면 굉장히 그거 아 이사람 진짜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중략) 되게 단순한 건데 사람들이 그거 했을 때 되게 제일 만족도가 높아요. 이거 없을 것 같은데 생각했는데 기록연구사가 딱 찾아주면 어.. 역시.. 기록관리가 필요한 거구나. 그거만한 게 없거든요.” (삼백초)

"정말 일반직원들은 이 기록관리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딱 전화해 갖고 저 이런 기록을 찾아주세요. 라고 했을 때 바로 찾아주면 되게 유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중략) 자기한테 필요한 걸 찾아주니까 그거에서 일단 고마움을 느끼고 그래서 아 이 사람이 기록관리 하는 사람이구나? 아 기록관리 하는 사람이라 역시 다르네? 그런데서 되게 우리가 보기엔 별거 아니잖아요." (해당화)

“내부 서비스. 그렇게 하면은 일반 공무원들이 기록관리 했을 때 보다 아 기록학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기록도 더 빨리 찾네? 라는 그런 게 더 눈에 띄고 더 효과적인 것 같다는 생각을 그래서 더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산수국)

내부구성원이 요구하는 기록을 빠르게 찾아 주는 행위는 단순하고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직원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전문성은 사회적 인정에서 비롯되는데, 그 인정은 능력의 입증보다는 신뢰를 통해 얻어진다(이소연, 2011). 기록전문직이 이용자를 발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전문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행동인 것이다.

“우리가 막 전문용어 말하고 이래봐야 백날 그래봐야 소용없고 정말 딱 찾는 거? 원하는 걸 딱 바로 주는 거? 금방 찾아 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사람들은 되게 뭔가 신뢰를 한다. 그러나? 그래야 이제 자기들도 이관을 하고 이러면 내가 이관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이렇게 관리를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이것을 다시 활용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민도록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각 부서마다 서고가 있긴 한데 항상 부족해요. 종이기록은 계속 생산이 되니까 그러면 부서에서도 너무 이제 기록을 버리자니 찢찢하고 어디다 좀 잘 났으면 좋겠는데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이제 신뢰를 갖고 우리를 믿는 거죠.” (해당화)

이들은 기록전문직이 기록을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을 맡기면 언제든지 다시금 활용하기 쉽다는 믿음을 주고 그들과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조직의 동료들은 기록관의 이용자이자 기록 생산자이며, 업무를 같이 진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조력자이거나 방해할 수 있는 방해자가 될 수 있다. 신뢰의 형성은 추후 이관업무에도 직원들이 거부감을 보이지 않고, 협조적인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신속한 자료열람서비스를 위해 기록전문직이 기록관에 기록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는 효과적인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 산수국은 기관 혹은 서고에 어떤 기록물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 일은 기관에 기록전문직이 존재하는 명분과 직업적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일로 여긴다. 그래서 기관 전체를 다 파악하긴 힘들더라도 최소한 기록관 안에 어떠한 기록이 있는지 파악하는데 공(功)을 들이는 모습이다.

“직원이 무슨 기록문서를 찾으러 왔는데 기록관으로 찾아 자기 과에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 과에는 없다는 거. 우리 기록관에 와서 기록 좀 찾고 싶어요. 이렇게 왔는데 아 우리 서고에 있는 지 없는 지 잘 모르겠는데? 이래버리면 굳이 우리가 있어야 할 명분이 많이 약해진 거예요. 우리 자신도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거고 내가 내 하물며 우리 부서의 어디부서에 이런 기록이 있다. 라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그것도 당연한 거지만 우리 기록관마저도 우리 기록관에 무슨 기록이 있는지 모르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좀 기록전문가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에 대한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산수국)

기록전문직은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깨닫고, 기록관리의 존재감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을 둘러싼 타자(他者)와의 관계 속에서 이용자를 발견하게 된다. 이용자를 발견으로 기록전문직으로서 자신의 존재감이나 존재이유가 다시금 발견이 되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을 전문가로 여기는 자아(自我)에 갇혀 현실에서 갈등과 방황을 되풀이하게 된다. 긴 방황에 이들을 건져주는 것은 잘못하면 불만도 늘어놓고, 잘하면 고맙다고 인사도 하는 즉각적인 피드백을 주는 눈앞에 살아있는 이용자인 것이다. 이들에게 자리하던 기록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아키비스트의 역할이 다소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었다면, 이제는 이용자와 어떻게 연대하고 협력할 건가 실제적인 고민을 하고, 현실에 적용하는 아키비스트로 변화한 것이다. 이용자의 발견은 조직 내 기록전문직의 존재 이유나 존재감을 확보하게 되는 체화된 소명의식의 진전이다.

4.3.2 법으로 설득하기 ?

법(法)은 사회에서 혼란을 해결하고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규범이다. 법은 위반할 경우, 타율적, 물리적 강제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실현하는 강제규범으로, 국가 내에 존재하는 관습, 도덕, 종교 등과 같은 사회의 규범보다도 우월한 국가규범(doopedia 두산백과)을 의미한다. 기록전문직에게도 가장 큰 무기이자 힘은 공공기록물관리법이다. 기록관리 업무 수행의 강력한 원칙이자 기록현장에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 존재하는 실재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공공기록물관리법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까? 기록은 마땅히 관리되어야 한다는 당위성만으로는 구성원들을 설득하기 어려웠다. 오히려 참여자들은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기록관리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제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 50조 벌칙에 의거 이러면 근데 뭐 어찌라고? 이러는 거예요. 되게 놀랐어요. 뭐, 어찌라고. 그래서 뭐 벌금 댄데? 막 이러고 벌금 어따 내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법대로 한다. 그러면 다 사람들이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닌 거에

요. 법은 법일 뿐인 거고 안 지켜져 온 관행은 관행일 뿐인 거예요. 그들하고 소통을 함으로써 그들이 그 기록물관리에 대한 거부감 없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그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게 중요하는 것 같아요. (중략) 기록물관리도 인간과 인간끼리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로봇이 생산하는 기록을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생산해 놓은 기록을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소통이 제일 중요한 거죠. 법, 규정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낭화)

금낭화는 기록관리 법대로 한다고 하면 당연히 지켜지는 줄 알았다. 그러나 법은 법일 뿐 안 지켜온 관행은 계속되었다. 법대로 한다는 말에 조직의 구성원들은 코웃음을 치기도 했다. 기관의 구성원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기록을 생산하도록 만드는데 공공기록물관리법은 강력한 무기가 아닌 것이다.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에서 그는 기록을 관리하는 일이 기록생산자와 기록으로 상호작용하는 일임을 알게 되었고, 구성원들과 소통하는 법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한다.

“조직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인간관계들. 특히 기록전문가들은 워낙에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잖아요. 기록물 이관도 받고 뭐 현장 지도점검도 나가고 그니까 훨씬 더 다른 직렬의 사람들과 부딪힐 일이 많거든요. 그 때 인간관계가 되게 우린 법규에 있으니까 법규에 따라서 칼같이 해오는 그렇게 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인간관계를 통해서 되는 것들이 사실상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중요하죠. 그런 게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팽이밥)

“‘정리해서 이관해라.’ 라고 했는데 ‘난 이렇게도 해도 되지 않냐?’ 그러면 ‘아이 안 된다. 정해지 서식에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되돌아가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건 이제는 아까 말한 대로 내 윗사람한테 얘기해서 ‘우리 정해진 룰이 있는데 그 사람만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럼 맞다고 하고 전화 하지. 그 쪽 부서장한테 ‘야 우리 다 이렇게 하는 거야. 너네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 푸는 거죠. 100프로 해결은 안 돼요. 물로 그렇

게 하는 게.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1대1로 푸는 부분이 오히려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상황판단을 해야 되죠.” (고란초)

“저는 기록연구사가 두 가지 종류로 나뉘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관이 제일 적절한 예인 거 같아요. 이관을 하는데 '아, 이관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아, 바빠. 못 해. 못 해.' 이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유~ 친하게 형님, 형님하면서 아유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제대로 안 되면 다시 막 그 과 앞에 갖다 놓고 막 진짜 거의 욕을 들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시켜갖고 '아, 진짜 지겨워서 해줘야지 저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어떤 게 좋은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과정들을 혼자 겪는 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죠.” (삼백초)

기록관리 업무에서 필요한 것은 구성원들과의 소통이다. 기록관리 법이 구성원들과의 소통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들은 인간관계를 활용하는 우회적인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기록전문직은 이관, 현장 지도점검, 폐기, 서비스 기록관리 전반의 업무수행에서 기록생산자이자, 기록관이용자로 다수의 구성원을 만난다. 기록전문직은 그들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업무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종종 효과적일 때가 많다고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기관의 모든 구성원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업무의 고단함을 가중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저 자체도 남한테 싫은 소리를 하기는 상당히 부담되는 성격이라서 (중략) 저는 일일이 그 안 낸 사람들에게 전화하고 개인적으로 메일 보내고 좀 약간 부드럽게 하는 편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인정이 통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끝까지 나 몰라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써는.. 그 제가 좀 기다려도 되고 그런 거는 어느 정도 끝까지 기다렸다가 그 때 끝까지 끈질기게 받아내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민들레)

“근거 같은 거를 잘 설득을 하거나 약간 절충 할 수 있겠다고 싶으면 그 쪽 손을 들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쪽도 그 나름대로 그 분야의 담당

이기 때문에 제가 무시할 순 없는 상황이라서 이해를 시킨다든지, 같이 저도 그 쪽을 들어주는 척 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보류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민들레)

그래서 개인의 성격에 맞게 갈등에 대처하는 모습도 발견이 된다. 민들레는 직원들의 더딘 업무 협조에 끈질긴 기다리는 방법을 사용한다. 시간은 조금 더 걸리지만 1대1로 직원들에게 전화와 메일로 부드럽게 협조를 구하면 인정(人情)이 통하기도 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기한 마감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고, 업무 담당자와 상의하여 절충하는 형식으로 융통성을 발휘하여 갈등에 대처하고 있다.

기록관리 전문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기록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는 어렵다. 기록관리 업무는 기록생산자인 조직 구성원들과의 상호 작용하여 진행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직 내 구성원들에게 기록전문직으로서 존재를 인정받는 일이다. 이를 위해 그들의 행동 방식은 기관에서 기록전문직의 현실적인 위치와 상황을 인지하고, 내부구성원의 입장을 살펴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는 지피지기(知彼知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니까 우리 기록전문직들의 가장 큰 무기는 기록관리 법인데 법이 기록관리 법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주변의 여러 행정법들이 있는데 어느 정도 그런 걸 이해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행정직이 봤을 때는 기록관리 법은 하나일 뿐이에요. 그들이 다루어야 될 수많은 법 중에서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우리는 누구보다 그걸 잘 알아야 되지만 다른 것도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좀 예산도 알아야 하고 조직법적인 것도 알아야 되고 뭐 그런 거를 좀 알아야지 얘기가 통하는 거죠. 우리가 양보할 거는 양보를 하고 누가 봐도 안 되는 건데 우리가 뭐 기록관리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깐 이렇게 해야 해. 라고 얘기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뭐 그런 게 좀 필요하죠.” (팽이밥)

지피지기(知彼知己)의 자세로 팽이밥은 기관 내 다른 구성원이 업무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공공기관

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행정직의 언어 즉 행정법, 조직법 등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록전문직이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이해하고, 기록관리 전문성도 보유한 사람으로 다가가는 것이 인정받기에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다. 타인의 언어를 이해함으로써 필요한 것에 대해 효과적으로 의사를 전달하고, 서로의 입장을 절충하여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조직에서 업무가 실행되는 맥락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자신만의 생존방식이다. 기록관리 업무에서 필요한 자원을 얻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기록전문직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기록관리 업무는 아시다시피 기반 업무고 현실적으로 지원업무예요. 티가 안 나요. 잘. 근데 티가 나게끔 해야 되는 게 저는 우리 기록관리 현장에 있는 기록관리인들의 목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과를 인정받고 그리고 거기 안에 내부에서 지위를 인정받고 올릴 수 있고 그래야 나름 기록관리 업무를 순탄하게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선은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기록을 가지고 자원화 할 수 있다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순전하게 기록관리 해야 된다. 우린 당위성을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기관에서는 기록관리 업무를 하는 것이 기관한테 어떠한 이득과 어떠한 성과를 줄 수 있는 지를 요구를 해요. 거기에 맞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 시나 콘텐츠에 대해서도 기록관리 하시는 분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콘텐츠가 나오려면 기록관리가 체계화되고 흩어져있는 것들이 모아서 자원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뭔지가 먼저 확보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노루귀)

노루귀는 기록관리 업무를 순조롭게 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기관에서 기록관리의 위치, 역할과 기록관리에 대해 기대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그는 기록관리를 통해 어떠한 이득과 성과를 가져다주는지를 요구하는 조직의 논리를 이해하고, 기록전문직은 이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안으로 노루귀는 기록을 자원화하여 콘텐츠를 구축하고 전시로 보여줌으로써 기록관리로 인한 이득과 성과를 보여주고자 한다.

Ridener(2009)는 아키비스트는 조직의 구성원이자 조직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의 기록을 가지고 조직의 현대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언제나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문화적, 사회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아카이브를 유지하거나 만드는데 기여하는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의미한다(Ridener, 2009). 이러한 아키비스트의 역할에서 그는 기록전문직이 기관 내부에서 성과를 인정받고 지위를 올릴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기록전문직은 법으로 기록관리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것에 한계를 체감하고, 자신만의 고유한 방법으로 기록전문직으로서의 입지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 대부분의 기록관리 업무에서는 기록생산자들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기록전문직은 인간관계를 활용하여 친분쌓기, 인정에 호소하기, 업무담당자와 절충하기 등의 방법으로 조직 내 적응을 도모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업무가 실행되는 맥락과 조직의 논리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언어 이해하기, 기록을 자원화하여 기관의 요구 충족하기 등 전략적인 방법으로 기록관리의 필요성을 이야기 한다. 이것은 무엇보다 기록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이자, 기록전문직 존재의 필요성을 강화하기 위한 행동양식이다.

4.3.3 손에 손잡고

기록전문직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문화적인 요소는 동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록 현장에서 충족하지 못 하거나 모자란 부분을 외부적 에너지원으로 충전하기 위해 다른 기록전문직들과의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 동병상련의 처지에서 위로를 얻기도 하지만 기록전문직으로서 더 잘하고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현장에서 곳곳이 버터내기 위해서이다. 그러한 행동 이면에는 기록전문직이라는 자부심이 내재되어있기 때문이다.

“제일 힘든 게 내가 이걸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 부분에서 되게 많이

이제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더라구요. (중략) 가끔 한두 명씩 만나서 얘기를 할 때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가서 내 고민을 정리해서 좀 얘기를 하고 딴 사람의 고민을 듣고 이런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공동체 활동에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버티기 위해서 내가 더 잘하기 위해서.” (고란초)

“서로 노하우도 공유할 수 있게 되고 실제로 책에서 배운 것 보다 전문요원들끼리 모여서 논의하면서 시행착오 겪었던 것들 이야기하고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폐기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까. 이것저것 다 얘기해보고” (금낭화)

“기록인들 현장에 있는 기록하시는 분들하고의 사적인 만남은 계속 갖고 있어요. 그럼 대부분 인제 뭐 현장업무에 대한 고민이나 아이디어 갖는 걸 많이 하죠. 그 정도. 그런 사적인데서 많이 이렇게 아이디어나 뭐 이런걸. 많이 얻고.” (노루귀)

같은 처지에 있는 기록관리 종사자들과의 만남은 고민을 나누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연구의 장이기도 하다. 대부분 1인으로 근무하는 기록전문직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동료집단의 부재로 고립감을 느끼게 된다. 뿐만 아니라 혼자서 해결해야한다는 부담감을 동시에 안고 있다. 고란초는 매번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는 의구심이 들었고, 확신이 없어 답답함을 느꼈다고 한다. 기록관리 종사자들과의 손잡기는 업무에서 당면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이자,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성찰하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기회로서 작용을 한다.

“2년이 저한테는 고비였었던 것 같아요. 나태해져갔고 그걸 또 새로 잡아야 되는 이런 거. 행정직들은 그냥 2년, 3년마다 계속 순환을 하잖아요. 뭔가 새로운 업무를 계속 배우고 이러는데 우리는 계속 같은 업무를 계속 그 자리에서 계속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좀 지루함을 느끼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을 만나고 자꾸 자극을 받아야 되는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해당화)

“현장에 있으면 현장 논리에 익숙해져버려서 소위 말해서 설령 뜬구름 잡는 이야기일지언정 학계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고 학계에서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접할 기회가 없어요. 회사 일에 빠지게 되면 밖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고, 그래서 자극이 필요하고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는 학교라고 생각했어요.” (노루귀)

그리고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업무 가운데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자극제이기도 하다. 노루귀는 현장 논리에 익숙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자극을 받기 위해 학교로 돌아갔다. 그러한 행위 이면에는 기록전문직으로 자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동종 업계 종사자들과의 만남은 고민 공유하기를 넘어 기록관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실천적인 모임으로도 이어지기도 한다. 산수국은 민간에 관심을 가지고 민간의 기록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사람으로 업무 이외에 자신의 시간과 사비를 투자하고 있다. 그가 참여하는 모임은 기록관리가 필요한 시민단체, 소속 활동가와 함께 기록관리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모임이다.

“대학원에 들어왔을 때는 그런 꿈과 희망을 갖고 들어왔는데 이게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게 됐잖아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긴 했는데 내 그 공부의 목적이 좀 비껴나가고 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중략) 그 하는 이유는 사실 단순해요. 학자금 대출도 갚고 돈이 좀 필요 돈을 좀 그래도 벌어야겠다. 싶은 생각에 했던 건데 이게 어느새 5년이 되버린 거죠. 원래 내가 하려고 했던 대학원 공부하면서 하려고 했던 영역에 대한 그런 어떤 복귀? (웃음) 거기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강한 거죠.” (산수국)

“ 그래 네가 이제 공공기관에 있지만 어쨌든 공공기관에서도 그런 어떤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돈 벌면서 할 수도 있잖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안 하고 자꾸 왜 밖에서만 찾으려고 해. 라는 생각

이 들어요. 밖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기록관 안에서도 그런 일 할 수 있게 서로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밖에서도 하고 밖에서 보는 이 공공기관 안에 있는 나를 모습을 봤을 때도 야, 너 그 안에서도 동네에 일하고 지역의 뭐 마을 기록이라든지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아냐. 그거 한 번 찾아봐. 돈 벌면서 해봐. 그런 자극? 같은 느낌? 그렇죠.” (산수국)

이러한 활동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그의 업무에 직접관련성은 없지만 기관 안에서 일하는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공공기관 내에서 민간 영역과 관련한 업무를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의 전환으로 항상 분리해서 여겼던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경계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마냥 다람쥐 쳇바퀴처럼 느꼈던 공공기관에서의 업무에도 활력이 된다고 이야기 한다.

“내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면서 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략) 여기는 정말 그냥 내 의지만 있다면은 그냥 나 혼자서라도 뭔가 내 직장에서 하는 일 말고 다른 일을 기록관리를 관련해서 많이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내 인생의 최종목표는 민간기록을 관리하는게 목표거든요? 그니까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나중에 나이가 들면 그만 둘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디 시골 같은데 가서 그냥 내 기록이든 뭐 신랑기록이든 마을기록이든 뭔가 좀 그런 기록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요. 막 돈벌이가 아니라 그냥 내 재미로. 이런 경험이나 이런 활동들이 나중에 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당화)

기록문화를 지향하는 시민단체가 진행하는 개인 아카이브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해당화도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를 맞이했다. 기록관리가 공공기록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록관리 영역에서 자신이 할 수 있을 일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민간영역과 손 잡기는 아카이브에 근무하는 해당화의 업무에 직접적인 도움이자 활력소이기도 하며, 민간기록을 관리하고 싶은 인생의 최종목표에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록전문직은 기관 외부에서 동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힘을

얻고 있다. 이들과의 만남은 기관에서 느꼈던 고립감이나 어려움에 대한 공감
을 얻을 수 있는 위로의 장(場)이다. 그리고 기록전문직으로서 자신의 분야에
서 더 잘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더 나은 방법을 고민하는 연구의 장
(場)이기도 하다. 퇴근 후에도 다른 기록전문직들과 협업하여 민간 분야의 기
록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들은 스스로에게 만족감
을 줄 뿐만 아니라, 기관의 업무에도 활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4.3.4 긍정적인 기억들

기록전문직으로 살아가면서 형성된 긍정적인 기억들은 이 직업으로 살아
가는데 힘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긍정적인 기억들은 참여자들이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느꼈던 경험을 의미한다. 즉 자부심의 속성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는 것이며, 이것이 직업적 자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되게 사소한 것들에서 되게 보람을 느꼈거든요? 뭔가 직원들이 뭘 찾아달라
고 했을 때 내가 바로 찾아줘서 그들의 너무 고마워 할 때. 그럴 때.” (해당화)

“뭘 기록물 찾아 줬는데 되게 고마워했을 때가 제일 저거(만족감을 느끼
는 순간)죠.” (삼백초)

“내가 기록관리를 함으로써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 그전과는 다른
어.. 다른 사람들이 알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못 알아주는 부분도 있
는데 어쨌든 다른 사람은 알아주는지 못 알아주는지 몰라도 제 자신이
그래도 기존 했던 거 보다는 뭔가 한 단계 나아졌구나. 라는 어떤 만족감
이 들 때. 그 때 줌” (산수국)

연구자가 기록전문직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보람을 느낀 때를 질문 했을
때, 참여자들은 물리적인 보상 보다 내면의 만족감이 충족되었던 기억을 이야
기 했다. 예를 들어 기관의 구성원들이 기록전문직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을 때
와 같이 자신의 업무 행위로 타인에게 도움이 되었음을 느끼는 순간을 말한

다. 그 기억은 마음의 훈장으로 남아 기록전문직으로 살아가는데 동력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게 처음 쓸 때는 되게 불편하죠. 왜냐면 정리를 더 많이 해야 되니까, 하지만 한 번 이거를 해놓으면 기록물 폐기할 때도 되게 편해요. 뚜껑 다 안 열어도 되고 목록보고 뭐뭐뭐 있으니까 폐기 아니네, 아 이거는 상자 째 폐기해야겠네? 이게 딱 보이니까 이게 너무 좋았다고들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할 때는 엄청 투덜거리면서 왜 해야 되냐. 그랬거든요. 한 번 정리하고 나서 좋다는 의견도 듣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 기관에 가서 하니까 되게 희열이 소름이 짝 끼치면서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금낭화)

금낭화는 기록 생산자들이 효율적으로 기록을 정리할 수 있도록 보존상자 서식을 기관에 맞게 변형하여 제공하였다. 시행 초 업무 변화에 거부감을 느끼는 직원들도 있었지만, 제공한 서식은 직원들이 기록물을 정리 하는데 편리했다. 심지어 전출 간 직원의 요청으로 타 기관과 서식을 공유하여 직원들의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 기록관리 업무가 쓸데없고 귀찮은 일이 아니라 직원들의 업무에 편리함을 주는 일임을 몸소 체감한 것이다. 자신의 행위가 공공에 이익이 됨을 확인함으로써 보람과 희열을 느꼈던 경험으로 남아있다

“기록물 폐기를 하면 없애는 게 목적이니까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넣어서 목록을 딱 중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거기서 역사적 가치, 문화적 가치, 사회적가치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진짜 평가를 할 때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오랜 시간동안 평가를 해요. (중략) 그래도 평가를 해서 아 애는 보류. 이렇게 하면 그 과에서 전화가 와요. 왜 나 이거 보존기간 지났는데 버려도 되는데 왜 그랬냐. 그러면 아 이걸 어떤 이유에서 더 놔두어야 좋을 것 같다. 그런 적이 많은데, 근데 진짜로 민원인이 갑자기 정말 필요해가지고 찾아와서 그 직원이 그거를 기록관에 보류해 놓은 그 위치에서 빼가더라구요. 그래서 그 때 정말 아 잘했구나. 그 직원도 좀 고맙게 여기는 그런 적이 있어서 그럴 때 보람을 느꼈죠.” (민들레)

재평가로 보류된 기록을 민원인에게 제공한 경험도 민들레에게 긍정적인 기억이다. 민들레는 꼼꼼한 평가를 통해 역사적 가치, 문화적 가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려는 기록전문직으로서의 소신으로 업무에 전념하고 있음을 밝혔다. 소신을 지키면서 보류를 원하지 않는 직원들과의 갈등도 있었지만, 폐기될 뻔한 기록이 보류되어 민원인에게 제공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의 임무를 온전히 수행하였다는 뿌듯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여기서 기록전문직의 임무란 기관이 민원인에 요청에 업무 행위를 설명할 수 있도록 기록을 통한 설명책임의무를 지원하는 역할에 놓여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역할을 확인하는 계기를 통해 조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다는 직업적 자부심과 만족감으로 이어졌다.

“사장님이 이제 무슨 간부회의라는 걸 하잖아요. ‘아, 우리 간부회의 자료는 이거 중요하니까 영구로 보존해야하는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봤었는데 그 때 회의 담당자가 간부회의가 이미 영구로 잡혀있는 거 보고 전화를 저한테 한거죠. ‘어?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 ‘아 보니까 그 과정에서 그 회의를 하더라구요. 근데 이런 거는 기관장이 참석하는 회의고 중요한 회의니까 이런 건 영구로 적용하는 보존기간이 맞다고 봅니다.’라고 했더니 그런 단위과제하고 그런 보존기한이 안 되어 있을 까봐 전화 드렸는데 이미 되어있어서 놀랬다 뭐 이런 그런 자질구레한 그런 거에서 아 이거 조금 사소하게. 그 분들 요만큼이고 저는 이 만큼 크게 느끼는 거죠. 그 만족감을 (웃음)” (산수국)

기록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산수국은 기록의 가치를 믿고, 기록관리가 공공의 이익이 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 간부회의 중 무심결에 튀어나온 기관장의 기록에 대한 관심에 그는 기관의 기록전문직으로서 적절한 관리 조치를 취하고 있었음을 보여줄 수 있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기록전문직으로서 올바른 업무행위로 기관의 기록관리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 직업으로 살아가는데 보람을 느끼고 있다.

“저는 이 직업이 되게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략) 예를 들어서 나쁜 어떤 조직에 들어갔는데 기록관리를 하면 그 조직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증거로서의 기록도 관리를 할 수가 있고 나쁜 짓을 증거로서의 기록도 관리할 수 있잖아요. 뭐가 됐든 사회적으로 기록을 관리하는 건 의미가 있는 일이잖아요? 좋은 일을 한건 좋은 일을 한 것으로서의 의미가 있고 나쁜 일을 한건 그 증거를 보존한 게 더 의미 있는 일이고 그래서 기록관리라는 건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하던 그 물론 증거를 폐기하고 이런, 기록관리 연구사가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든 기록관리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라 생각하기에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 생각을 하고 동시에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고” (삼백초)

“기본적으로 민생고를 해결하는 것도 있고, 전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정직하게 내가 정직한 일을 좀 더 정직한 차원의 일을 하면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방편이기도 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회가 좀 더 나아지는데 구체적인 역할을 하는 그 중의 일부로서 업무를 하고 생활을 하는 그런 거에서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고란초)

기록전문직은 이 직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데 만족을 느끼고 있다. 기록의 증거적 가치를 믿고, 그 기록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데 일조한다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정직한 일에 종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 자부심에는 우리사회에 안전한 테두리를 만들어 가는데 얼마간의 도움이 된다는 직업적 긍지가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업무행위로 보람을 느끼는 경험은 긍정적인 기억으로 각인되어 기록전문직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로 발현되고 있다. 자부심은 열악한 현실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자 이 직업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다. 이들의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점은 기록전문직은 자신의 업무행위로 타인과 사회에 도움이 됨을 확인할 때 자신의 직업을 의미 있는 일로 인지하고 만족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은 아키비스트가 정보관리 업종보다는 돕고, 봉사하고, 가르치고, 치료하는 등의 행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

람들을 의미하는 프랙티션(practition)업종에 가깝다고 이야기한 이영남(2016)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이타적 방향성을 가질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아지는 프랙티셔너(practitioner)는 상대의 관점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전문적 행위가 의미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Skovholt, 2001: 이영남, 2016에서 재인용). 연구에 참여한 기록전문직 역시도 기록과 관련된 전문적인 행위로 타인에게 유용함을 주고 그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직업에 만족감을 느끼는 경험을 하였다. 이들은 끊임없이 노력하여 자기를 닦아 세우는 자세를 가지고, 전문가 되기라는 목적의식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다. 연구에 참여한 기록전문직은 기록전문가로서의 삶을 꿈꾸고 있다.

“아 이 사람이 기록관리를 좀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이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좋네.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네. 라는 것 들을 계속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세세하게 테크닉적인 거라든지 시스템을 뭔가 이렇게 잘 활용을 한다든지 뭔가 효율적으로 잘한다든지 하여튼 전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우리 여기에 속해있는게 참 좋은 거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하고 싶어요. 더 큰 포부라고 한다면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꿈인데 공공기관 말고 밖에서 좀 이거를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먼 미래에 까지 포부? 라서.” (산수국)

“저는 그 프로젝트를 잘 완성하고 싶은데,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행정업무 이외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그게 어찌보면은 먼저 정보같은 거를 공개를 해서 사람들에게 유용함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에서는 기록관에 있는 기록물들을 뭐 필요한 공무원들이 찾아가지고 민원인한테 필요할 때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다가가는 이용자들을 위한 그런 서비스를 하고 싶은데 그냥 아직까진 꿈인 것 같아요. 뭔가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민들레)

“사람들이 뭔가 수집과 관련된 일을 뭔가 하려고 할 때 저를 찾아 올 수 있겠끔 그럼 제가 도움을 줄 수 있겠끔 그만큼 제가 발전을 해있으면 좋

겠어요. 이 분야에서 만큼은” (해당화)

“저는 전문직으로서 사실은 저는 사실 기록연구사니까 연구하는 사람이라 생각을 하는데 제가 제도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그니까 기록관리 법이나 제도, 체계 이런 거에 대한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중략) 그래서 법과 제도를 잘 볼 수 있는 연구사가 되서 뭔가 좀 도움이 됐으면” (삼백초)

“기록전문직에 대한 직과 업에 대한 제도를 좀 정비를 하고 싶다. 개선을 하고 싶다. 그니까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돼 나가는데 일조를 하고 싶은 거죠.” (고란초)

“내가 하는 일도 나름의 전문영역으로 인정받는 것. 그리고 스스로 기록관리 업무 자체가 의미 있다고 지속적으로 느끼는 것. 뭐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저는 뭐 거창하게 기록관리를 통해 사회를 변혁하고 민주화에 기여하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는 하진 않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할 역량도 안 되고. 그렇게 거창하게 하면서 자신의 사명감을 이야기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영역이던 수많은 전문가영역 중 하나로서 우린 스스로 자임할 수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다른 집단이나 일반 대중들에게 우리 스스로 기록관리 전문가라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우리 일상 하루 중 대부분을 업무시간으로 보내잖아요. 그 시간을 일반직이 아니라고 전문직으로서 의미 있게 보내려면 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노루귀)

직업경험을 통해 기록전문직에 대한 태도는 고정되고 정형화된 모습의 전문가가 아닌 발전하기 위해 부단히 움직이고 노력하는 생동감 있는 동사형의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들이 생각하는 전문가는 전문성을 갖추고, 자신의 행위로 공공의 이익이 되는 목적의식을 지닌 사람인 것이다. 공통적으로 이들은 기록관리를 통해 기록관리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세상에 도움이 되는 기록전문가를 꿈꾸고 있다.

V. 종 합 및 논 의

본 연구의 결과로, 기록전문직의 직업경험에서는 ‘동경’, ‘기록관리 황무지’, ‘기관에 동지 틀기’ 3가지의 하위주제가 도출 되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기록전문직들의 직업적인 삶에서 ‘기록전문가를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문화적 주제로 발전하였다. 문화적 주제를 구성하는 ‘기록전문가 되기’는 기록전문직의 직업경험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개념이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기록전문직으로 나아가고 있는 참여자들의 직업 선택 동기에는 이 직업에 대한 ‘동경’이 자리하고 있다. 기록전문직이 지닌 안정성, 전문직군, 사회적 역할의 면모에 매료되어 기록관리 대학원 내지는 교육원으로 진학하게 된 것이다. 학문과정에서는 기록학 교육과 기록공동체의 활동을 경험하면서 기록전문직에 대한 동경이 한층 강화된다. 교육과정에서는 기록의 가치와 기록관리의 사회적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게 된다. 기록관리의 행위주체인 기록전문직은 역사적이고 가치 있는 기록을 보존함으로써 정부가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일정한 역할을 맡고 있다. 참여자들은 이 직업의 사회적 역할에 공감하였고, 기록관리의 본질적인 가치 내지는 역할은 점차 내면화되었다. 기록공동체의 경험에서는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개인보다 여럿이 함께 할 때, 전문성을 가진 공동체의 연대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된다. 연구자와 전문가로서 기록학의 관점에서 사회에 관심을 갖고,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연대하는 모습에서 기록전문직에 대한 동경은 강화되는 것이다. 학문과정에서는 저마다 기록전문직으로서 기록현장을 향한 청운의 꿈을 품게 된다.

그러나 커다란 꿈과 희망을 갖고 진출한 기록현장은 ‘기록관리 황무지’와도 같았고, 기록전문직은 이내 현실의 벽을 마주하게 된다. 이들이 겪는 현실의 벽은 자신이 진출하고 싶은 분야로 진출할 수 없는 기록현장의 한계, 기록관리를 실속 없는 업무로 여기는 선입견, 공무원이라고 하는 직업이 지닌 제도적인 한계, 기록전문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에서 비롯한 어려움이다.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기관에서 기록전문직은 마치 조직집단에 수용되지

못하는 이방인과 같은 존재로 고립감의 정서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기록전문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과 참여자들이 동경한 이상적인 기록전문직 사이의 괴리로 인해 기록전문직은 전문직으로 살아갈 것인지, 공무원으로 살아갈 것인지 혼란에 빠지게 된다. 자신의 직업정체성에 대한 혼란은 내면의 갈등을 심화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전문직은 기록관리 황무지와 같은 현실을 인정하고, 기록관리의 필요성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하는 실제적인 고민을 하고, 이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기관의 등지 틀기’의 모습을 보인다. 자신의 존재감을 확보하기 위한 행동에는 이용자서비스를 통한 신뢰주기를 실천하고 있다. 기록관리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한 행동은 인간관계 활용하기, 타인의 언어를 활용하기, 기록의 자원화로 기관의 요구 충족하기와 같은 조직 맥락을 이해한 실제적인 행동양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기관 내에서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외부의 기록공동체와의 만남을 통해 에너지원으로 충전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양식에는 기록전문직으로서 더 잘 하기 위함이자 기록현장에서 버티기 위함이며, 그러한 행동 이면에는 기록전문직으로서의 자부심이 내재되어 있다. 기록전문직의 직업적인 삶에서 형성된 긍정적인 기억들은 자신의 직업에서 자부심을 느꼈던 경험을 의미한다. 이들은 자신의 업무 행위로 공공의 이익이 됨을 확인할 때, 자신의 직업을 의미 있게 여기며 만족을 느끼고 있다. 참여자들은 ‘동경’, ‘기록관리 황무지’, ‘기관에서 등지틀기’의 과정을 거치면서, 공통적으로 기록전문가를 꿈꾸고 있다. 이들이 꿈꾸는 기록전문가는 기록관리를 통해 세상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데 기여하는 사회적 역할을 지닌 직업이다. 참여자들은 스스로도 기록관리 전문성을 축적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주고, 나아가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고 싶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다.

기록전문가를 꿈꾸는 사람들에게서는 본질적인 기록관리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들이 나타난다. 이들은 기록관리의 본질과 사회적 가치에 대해 과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기관에서 고립감을 느끼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기록전문직이 서로 연대하게 만드는 것은 기록학의 본질적 가치이다. 그 본질적 가치가 지켜졌을 때,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믿으며, 그 역할이 자신들의 것이라 여긴다. 이런 책임의식이 행동으로 발현되었고, 그것은 크게 두 가지 경향으로 드러난다.

첫째, 참여자들은 기록관리를 통해 사회의 설명책임, 소통, 사회정의를 이룩할 수 있다고 믿는다. 기록관리 본연의 업무를 통해 위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록전문직은 그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사회상과 기록학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거나, 단순히 멋지다는 느낌에 추동되기도 한다. 실무적인 테크닉을 습득하는 것과 함께, 기록학 본연의 가치관, 이상, 비전에 대해 고민했다. 아키비스트는 보존되어야 할 기록을 선별하고, 사회의 양상을 선별적으로 기록화하고, 기억을 구축하며, 설명책임성 확보를 위한 증거를 보호하고 사회를 위한 법적·행정적·재정적·문화적 이익을 보장한다. 이를 통해 시민 권리, 사회 지도층의 설명책임성 확보, 사회의 다양성을 제시, 사회 정의의 증진을 포함하는 민주적 원칙들을 강화시키거나 때로는 약화시키는 토대를 제공한다(Jimerson, 2009). 참여자들은 아키비스트가 일상적으로 하는 평가·선별, 정리·기술, 서비스 등의 업무가 궁극적으로는 투명한 사회, 그것을 바탕으로 소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하다는 것을 믿는다. 기록의 중요성과, 기록관리의 사회적 가치를 믿기 때문에 황무지와도 같은 기록관리 현장에서 기록전문직은 역사적 가치, 문화적 가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기록평가에 임하거나, 주어진 기록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인다.

둘째, 참여자들은 강자의 기록이 역사가 되는 현실에 편승하지 않고 주변부의 기록을 포용하려 했다. 보통사람의 일상적인 모습을 기록화하려는 기록학 실천주의가 대표적이다. 참여자들은 소외된 보통사람들의 기록을 공공의 영역으로 편입하거나, 민간영역의 기록관리를 지원하는 활동을 했다. 설명되지 않은 기록의 다양한 관점을 조사하고, 들려지지 않은 목소리를 조사해야 하는(Duff & Harris, 2002) 기록전문가의 역할에 깊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참여자들은 국가가 생산하고 그 관점으로 선별된 기록을 관리한다. 아카이브즈가 아닌 기록관에서는 법령상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기에도 벅차다. 관리자의 기록관리 인식을 고려하면 업무 외에 기록관리 활동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1970년 SAA연례회의에서 하워드 진

이 천명한 기록학 실천주의가 말하는 가치를 실천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런 배경적 한계 속에도, 시민기록을 생산하고 보유하는 시민단체의 기록관리를 지원하고, 지역 주민들의 기록을 수집하는 일련의 활동은 기록학 실천주의라는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다.

기록관리의 본질적인 가치는 기록전문직의 연대를 이끌어내는 공유 지점이자, 기록전문가를 꿈꾸게 하는 내면의 동력이다. 기록전문가를 꿈꾸는 것의 의미는 기록전문직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삶의 지향점이다. 그 안에는 기록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가가 되어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려는 목적의식이 내재되어 있다. 기록전문직은 기록관리가 가지는 본질적인 가치에 사로잡혀있다. 기록관리가 지닌 가치는 기록학을 선택한 동기를 시작으로 학문과정을 지나 직업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사라지지 않은 이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이자 신념이다. 이것은 역사나 사회에 유의미한 기록을 관리함으로써,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 민주사회가 발전하는데 기여를 하고,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모습을 아카이브에 담아 보존하여 사회 구성원들과 공유하려는 소명의식이나 사명감의 발현이다. 그래서 기록전문직으로 살아가는 것의 의미는 전문가 되기를 지향하는 것이며, 그 이면에는 자신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타인과 사회를 함께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한다. 비록 기록관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 속에 있지만, 기록관리의 본질적인 가치를 다시 한 번 이룩하고, 기록전문직의 사회적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여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은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록전문직의 직업경험에서 추가적으로 3가지의 문화적인 요인을 발견하였다. 이를 토대로 기록학 분야에서 쟁점이 되어야 할 주요 사항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기록전문직은 직업적인 삶에서 공통적으로 ‘고립감’의 정서를 공유하고 있다. 이들이 고립감을 느끼게 하는 요인은 기록관리와 기록전문직에 대한 구성원들의 몰인식에서 기인한다. 인터뷰에서 기록전문직은 스스로를 기관에서 익숙한 관습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자, 안 해도 되는 일을 귀찮게 시키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조직 내 구성원들은 기록관리의 효용이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 못한 채 법률, 지침, 정책 변화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

는 부가적인 업무로 인식하고 있다. 기록관리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구성원 간의 합의가 아닌 정책이나 법률에 의한 강제적인 접근은 기록관리에 대한 거부감으로 나타나거나 기록전문직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기록관리에 대한 물이해가 기록전문직과 구성원간의 충돌을 유발하거나 기록전문직 내면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기록전문직은 공무원 집단이 가지고 있는 기록을 관리하던 관습이나 문화를 공유하지 않고, 기존의 문화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기록전문직은 마치 조직 안의 구성원이면서 전적으로 구성원이 되지 못하는 이방인(異邦人)과 같은 존재로 스스로를 여기게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심리적 위축이나 고립감은 심화된다.

그러나 근무환경에 따라 고립감의 정도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대체로 혼자 근무하고 있는 기록관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고립감과 외로움이 더하다. 이들은 기관에서 당면하는 어려움을 온전히 홀로 감당하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복잡한 기록관리 프로세스나 업무에 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선임자 혹은 동료의 부재는 업무의 부담감과 고립감을 가중시킨다. 반면에 국가기록원이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 고립감을 느끼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기록관리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고, 업무가 세분화되어 있는 근무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업무에서 비롯한 갈등을 나눌 수 있는 동료 집단이 존재한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종사자들은 동료집단의 존재로 기록관 종사자들보다 비교적 심리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 한다. 이처럼 기록전문직에게 동료의 존재는 고립감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그런데 기록전문직의 직업적인 삶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기록전문직은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 다른 기록전문직들과의 만남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이다. 이처럼 고립감을 해소하려는 시도는 기록전문직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조직 내 적응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 노력의 일환으로 이들은 다른 기록전문직과 연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기록공동체의 활동에 참여하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 사적으로 다른 기록전문직들과의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 동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의 연대는 위로와 위안을 얻고, 업무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받고, 경험을 공유하면

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난다. 또 기록전문직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자극제와 업무의 활력소로서 역할도 한다. 이처럼 기록전문직들 간의 연대는 기록전문직의 직업적인 삶에서 주목해야하는 부분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기록전문직이 느끼는 고립감을 해소시켜줄 수 있는 기록전문직 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기록전문직들 간의 연대를 만들어갈 필요성이 제기 된다.

둘째, 공공기관 기록현장에서 기록전문직은 여러 갈등상황을 경험하면서 공무원으로 살아갈 것인지, 기록전문직으로 살아갈 것인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정체성에 대한 갈등은 기록전문직에 대해 개인과 현실에서 요구하는 역할이 서로 다른데서 기인한다. 기관은 기록관리를 행정의 효율을 위한 도구로 여기고, 기록전문직에게 법에 정해진 대로 때때로 폐기를 잘 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기를 요구한다. 반면 기록전문직은 기관의 기록화를 위해 전문직으로서 창의성과 자율성을 발현하기를 바란다. 바람과는 다르게 효율을 우선하는 환경에 놓이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의구심을 품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는 타성에 빠져 점차 더 나은 기록관리를 위한 고민 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서 자괴감을 느끼기도 한다. 기록전문직은 전문직으로서의 모습을 현실에 적용하고 싶지만, 공무원 사회의 관료적인 행태에서 한계를 체감하게 된다. 이들은 기록물관리 실태를 지도·점검하는 과정에서 직급상의 한계로 온전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말한다. 외부의 압력으로 인해 업무의 주체성을 제한받게 되고, 이것이 전문직으로서의 자신감 저하로 연결된다. 자신이 믿어왔던 전문직이라는 자부심은 사라지고, 더 이상 현실에서는 이상적인 기록전문직의 모습을 찾지 못하게 된다. 공무원 조직에 내재하는 형식주의, 무사안일주의, 책임회피와 같은 부정적인 문화는 기록전문직에게 그저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고 튀지 않는 행동을 요구한다. 기록전문직은 공무원 조직에 내재한 무사안일주의적 행태를 내면화시키고 수용해야하는 문제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으로 살아갈 것인지, 전문직으로 살아갈 것인지 혼란이 가중되는 것이다. 기록전문직이 지닌 전문직으로서의 이상(理想)은 계속해서 이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으로 어찌 보면 이들의 편안한 직업생활을 어렵게 하고, 갈등 상황에 놓이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이다.

전문직으로서의 이상은 긍정적인 작용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기록전문직들을 좌절하게 하거나 회의감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혼란과 갈등의 기저에는 다소 모호한 기록전문직의 정체성이 존재한다. 외부에 사서직, 행정직, 전산직, 큐레이터와 유사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이 직업은 전문직으로서 드러낼 수 있는 정형화된 실체를 뚜렷하게 보여 주지 못하는 문제에 놓여있다. 기록전문직은 공무원 사회의 경직된 조직문화와 효율성을 강제하는 환경에 순응하여 공무원으로 살 것인가 여전히 이상으로 가지고 있는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현하는 기록전문직으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갈등한다. 그럼에도 기록전문직으로 살아가기 위해 부정적인 현실을 타파하고자 하지만 이들은 스스로도 자신의 직업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면서 아노미(anomie) 상태에 있다. 스스로 기록전문직이라 여기지만 기록전문직이 어떠한 가치를 만들어 사회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기록전문직은 조직 내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직업 정체성을 설명하고 보여주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다.

기록전문직의 정체성은 현장에서 기록전문직을 좌절하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심지어는 자아분열적인 요소로까지 이르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자 기록전문직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지금까지 기록관리 이론에서는 많은 학자들이 아키비스트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기록전문직이 어떤 일들을 해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도움이 되는 건지 자신의 직업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낼만한 어떤 상(像)이나 이상적인 모델들을 만들어 내는데 실패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기록전문직이 전문직으로서 외부에 보여줄 수 있는 실제적인 직업정체성에 대해 이론적으로 시급하게 보완이 돼야한다. 누군가에게는 꿈을 꾸고 좇을 수 있는 지향점이 될 수 있도록 기록전문직의 직업정체성이 조금 더 구체적인 상으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사회의 기록관리에 대한 몰인식을 해결하는데 단초가 될 수 있다. 기록전문직이 어떤 사회적인 가치를 만들어 내는지에 대해 세상에 널리 홍보하고, 사람들의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활동을 위한 노력이 기록관리 분야에 필요하며, 계속해서 연구 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전문직은 열악한 현실을 인정하고, 다시 그 안에서 기관에 동지를 틀고자 기록전문직으로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으며 기록전문직으로 살아가면서 형성된 긍정적인 기억들은 이 직업으로 살아가는 힘이 되고 있다. 그 힘은 스스로에 대한 전문성과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즉, 정신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기록전문직은 조직 내 존재감을 확보하기 위해 더 이상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업무 행위에서 벗어나 현장의 실체를 파악하고 접근하고 있다. 조직의 이용자를 발견하고, 기록관리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인간관계를 활용하여 친분 쌓기, 인정(人情)에 호소하기, 절충하기 등의 방법으로 조직 내 존재감을 확보하고 있다. 조직에서 업무가 실행되는 맥락을 이해하여 다수의 행정직이 사용하는 언어를 활용하여 업무를 실행하기도 하고, 기록관리가 기관에 가져다주는 성과를 요구하는 기관에 맞게 기록을 자원화 하는 방안으로 요구를 충족하는 전략적인 행동들로 조직 내 적응을 도모하고 있다. 김명훈(2017)은 기록 생산 환경에서 조직을 운영하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실질적 이익을 제공하는 기록을 지식·정보 자원으로서 개념을 확대하고, 기록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론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국내에서 기록관리로 실질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는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기록관리 현장의 이야기가 학계에 원활히 전해지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 된다. 기록전문직이 개인이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존재하며, 현장과 이론이 공존하는 기록관리학문 역시도 발전을 위해 현장의 이야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이론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조성되어 기록공동체가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록전문직으로 살아가는 것은 전문가 되기를 희망하는 것이며, 이것은 삶의 지향점이자 목표이다. 이들은 기록과 관련된 전문적인 행위로 타인에게 유용함을 주고 그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직업에 만족을 느끼는 경험을 통해 이 직업으로 살아가는 것의 가치와 의미를 느낀다. 전문가를 지향하는 것의 본질은 자신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타인과 사회를 함께 생각하는 목적

의식이다. 그 목적의식에는 자신들이 이상으로 지니고 있던 기록전문직의 소명을 다시 한 번 이룩하여 세상에 도움이 되고 싶은 의지의 발현이기도 하다. 기록전문직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힘은 실무를 다루는 기술과 지식도 중요하겠지만, 스스로에 대한 전문성과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즉, 이들의 정신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록전문직을 보다 더 역사적인 소명과 직업의식으로 결합될 수 있도록 기록관리학 교육에서 실무적인 방법론보다 철학적이고 이상적인 이론 교육이 지금보다 더 강화 될 필요성을 제기한다. 아카이브의 역사나 철학에 대한 교육은 현실에서 당분간 갈등을 겪게 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기록전문직을 버티게 해주는 궁극적인 힘이 되기 때문이다. 기록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원 교육에서는 커리큘럼을 구성할 때, 실무적인 방법론 보다 기록관리의 본질과 가치들을 탐색하고 내면화 할 수 있는 교육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전문직은 법률에 의해서 위로부터의 개혁으로 생겨난 직종으로 일반 공무원들과 출발이 다르다. 기록전문직은 비교적 높은 직급으로 출발하게 되지만, 아직까지 기록관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열악하고 공무원 조직 안에서도 기록전문직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회적인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 사회에서 기록전문직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열악한 현실을 개조시키고, 기록전문직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정책의 변화나 구조적인 개혁도 중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열악한 현실에서 이들을 지탱하는 힘은 결국 전문가라는 자부심, 이들의 정신에서 나온다. 내부의 힘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기록관리를 공감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기록전문직 내부의 동력을 단단하게 강화시킬 수 있도록 기록의 본질적인 가치를 내면화하는 교육과 전문가 활동 등을 통해 계속해서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부심과 소명의식이 되살아 날 수 있는 기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VI. 결 론

기록전문직은 기록현장의 실질적인 행위자로서 기록관리 발전의 핵심적인 주체이다. 이들은 기록관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기록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고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기록현장의 변화를 위해서는 먼저 기록전문직을 이해 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이들의 직업 문화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으로 이어진다. 본 연구는 기록전문직이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그리고 기록전문직의 직업적인 삶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록전문직의 직업경험과 그 속에 내재한 고유한 문화적인 요인들을 탐구하기 위해 질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9명의 기록전문직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김영천의 실용적 절충주의에 기초한 포괄적 분석 절차에 따라 분석하여, 9개의 범주와 3개의 하위주제, 1개의 문화적인 주제를 도출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기록관리학 입문동기, 학문 과정, 직업생활 전반의 경험을 토대로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흐름대로 구성하여 기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은 연구의 결과를 내용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에 참여한 9명의 기록전문직의 직업적인 삶의 경험은 ‘동경’, ‘기록관리 황무지’, ‘기관에 등지 틀기’로 표현되었다. 그리고 이들의 경험을 관통하는 하나의 문화적인 주제는 ‘기록전문가를 꿈꾸는 사람들’로 나타났다. 기록전문직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동기에는 이 직업에 대한 ‘동경’이 자리하고 있었다. 기록전문직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직의 외연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동경이 기록관리 대학원 내지는 교육원으로 이끄는 주요한 동기가 되었다. 학문과정에서는 교육을 받고, 기록공동체를 경험하면서 기록전문직에 대한 동경이 한층 강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교육과정에서는 기록의 가치와 기록관리의 사회적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이 직업은 역사적이고 가치 있는 기록을 보존함으로써 정부가 투명하게 운영이 되도록 하며 이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

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게 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지닌 것을 확인하게 된다. 기록공동체의 경험에서는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개인보다 여럿이 함께 할 때, 전문성을 가진 공동체의 연대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 학문과정을 통해 기록전문직에 대한 동경은 강화되어, 청운의 꿈을 품게 된다.

‘기록관리 황무지’에서는 청운(靑雲)의 꿈을 안고 기록현장으로 진입을 하지만 사뭇 다른 현실에 좌절하게 된다. 기록전문직은 자신이 진출하고 싶은 분야로 갈 수 없는 한계, 기록관리를 실속 없는 업무로 느끼는 선입견, 공무원이라고 하는 직업이 지닌 제도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서 전문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장벽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벽 앞에서 기록전문직은 업무의욕의 저하되고, 내부구성원들과의 마찰을 경험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좌절감을 느끼며, 소수 직렬로서 다수를 설득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다. 이러한 갈등 속에서 기록전문직이 느끼는 고립감의 정서는 심화된다. 더불어 기록전문직에 대한 개인과 현실에서 요구하는 역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기록전문직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느끼기도 한다. 기록전문직으로 살아갈 것인지, 공무원으로 살아갈 것인지 내면의 갈등이 심화되는 것이다. 혼란의 기저에는 외부에 전문직으로서 드러낼 수 있는 기록전문직의 정체성이 모호하다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기관에 동지 틀기’에서는 열악한 현실을 인정하고, 기록전문직으로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시도들을 하는 모습들을 발견이 된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업무 행위에서 벗어나 현장의 실체를 파악하고, 조직의 맥락에 맞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기관 내 존재감을 확보하기 위해 이용자의 발견, 인간관계 활용하기, 타인의 언어 이해하기, 조직의 요구 파악하기 등과 같이 구체적인 방법으로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충족하지 못한 에너지원은 동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혹은 민간 영역과 손에 손잡기를 통해 충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동은 기록전문직으로서 더 잘하고, 현실에서 버티기 위한 힘을 충족하기 위한 행동양식이다. 직업경험 과정에서 이들은 보람과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은 자신의 직업 행위에 자부심을 느낀 경험으로 긍정적인 기억으로 남아있다. 기록전문직은 기록관리를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을 때, 도움을 받은 이들이 고마움을 전할 때 내면의 만족감과 보람이 충족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이들은 생계유지뿐만 아니라 정직한 일에 종사한다는 자부심과 우리 사회의 안전한 테두리를 만들어 가는데 얼마간의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직업적 긍지를 가지고 있다. 직업에 대한 자부심은 열악한 현실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자 계속해서 기록전문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경’, ‘기록관리 황무지’, ‘기관에 등지 틀기’의 과정을 거치면서, 기록전문직이 직업생활에서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인 주제는 ‘기록전문가를 꿈꾸는 사람들’이다. 기록전문가를 꿈꾸는 것의 의미는 이 직업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삶의 지향점이다. 그 안에는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아 전문가로서 사회에 기록으로 기여하려는 목적의식이 내재되어 있다. 결국은 역사나 사회에 유의미한 기록을 보존하여, 사회 구성원들과 공유를 하고 우리 사회의 모습을 아카이브에 담아 보존하겠다는 소명의식이나 사명감의 발현인 것이다. 그래서 기록전문직으로 살아가는 것의 의미는 전문가 되기를 지향하는 것이며, 그 이면에는 자신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타인과 사회를 함께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한다. 이와 더불어 기록전문직의 소명을 다시 한 번 이룩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다. 기록전문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실무를 다루는 지식과 기술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스스로에 대한 전문성,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기록전문직 직업경험에 내재한 문화적인 현상들이 도출되었고, 앞으로 기록관리 분야가 고려해야 할 만한 시사점들이 발견되었다.

첫째, 기록전문직은 직업적인 삶에서 공통적으로 ‘고립감’의 정서를 공유하고 있다. 대체로 1인 내지는 기관에서 소수로 존재하는 구조에서 발생하는 기록전문직의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록관리 분야와 기록전문직 단체는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기록전문직들 간의 연대를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기록공동체의 연대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직업적인 자긍심을 가지고 기록전문직이 활동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록관리 황무지와 같은 현장에서 기록전문직은 여러 갈등상황을 겪

으면서 공무원으로 살아갈 것인지, 기록전문직으로 살아갈 것인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아노미(Anomie) 상태에 있으며, 갈등의 밑바탕에는 모호한 기록전문직의 정체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의 모습은 현재 기록관리 이론에서 기록전문직의 정체성에 대한 구체적인 상(像)을 제시하는데 실패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록전문직이 어떤 사회적인 가치를 만들어 내는지에 대해 세상에 널리 홍보하고 사람들의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활동을 위한 노력이 기록관리 분야에 필요하며, 외부에 드러낼 수 있는 실제적인 기록전문직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게 보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기록전문직으로 계속 살아가게 하는 힘은 스스로에 대한 전문성과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 즉, 정신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직업에 대한 사명감, 전문가로서의 중요성, 사회적 가치를 내면화 시킬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아카이브의 역사나 철학에 대한 교육은 현실에서 당분간 갈등을 겪게 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기록전문직을 버티게 해주는 궁극적인 힘이 된다. 기록전문직을 보다 더 역사적인 소명과 직업의식으로 결합이 될 수 있도록 기록학 교육에서 철학적인 부분이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록전문직 실제의 삶과 경험적인 맥락에서 기록전문직을 파악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데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의 결과가 기록전문직의 직업적인 삶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여, 기록전문직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긍정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고, 사회에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후속연구가 기록학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강신주. (2013). 『(강신주의) 감정수업: 스피노자와 함께 배우는 인간의 48가지 얼굴』. 서울: 민음사.
- 곽영순. (2009). 『질적연구: 철학과 예술 그리고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국가기록원. (2017).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취득자 조사 결과 보고(‘17년 2월말 기준)
- 김갑선. (2008). 사서의 직업사회화 경험 - 현상학적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2), 327-370.
- 김명훈. (2017). 기록과 지식·정보 : 기록의 지식·정보 자원화를 위한 시론적 분석. 『기록학연구』, 54, 45-79.
- 김성훈. (2006). 전문직의 취업경로 - 사회연결망과 공식경로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0(5), 137-177.
- 김연경. (2013). 『기록관리직의 전문직 윤리 인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김영천. (2006). 『질적연구방법론 I』. 서울: 문음사.
- 김영천. (2016). 『질적연구방법론: 1 Bricoleur』.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김지현. (2014).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윤리강령 비교 연구 - 해외 전문직 협회 윤리강령을 중심으로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5(4), 5-27.
- 김희정. (2007). 국외 기록관리 전문직 유형 및 역할 분석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7(1), 129-143.
- 노명환. (2010). 영구평화를 위한 초국가주의 역사로의 전환기 아카이브즈와 아키비스트의 역할 : 유럽연합 아카이브즈 설립과정과 유럽차원의 과거사 청산을 위한 독일 아키비스트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23, 227-256.

민진영. (2013).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원 학업 적응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소리, 이성민, 김용, 김종혁. (2016).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도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4), 31-53.

박지희. (2009). 『내러티브 탐구를 통한 평생교육사의 직무경험 이해』.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태섭. (2017). 『IPA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 기록연구사의 직무분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대학원.

서혜란, 옥원호. (2008). 기록연구사의 근무실태 및 제도운영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8(1), 235-255.

송혜진. (2013). 『기록전문직 직무분석에 관한 연구 - 중앙행정부처를 중심으로 -』.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04).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신동희, 김유승. (2016). 기억을 위한 아키비스트 - 기억의 고찰.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1), 41-59.

신은정. (2015). 『미술치료사로서의 정체성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오항녕. (2002). 아키비스트의 역할과 윤리. 『한국기록학회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9-28.

오항녕. (2005). 한국기록관리와 ‘거버넌스’에 대한 역사적 접근. 『기록학연구』, 11, 15-40.

유현정, 김수정. (2016).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47, 95-130.

- 유혜정. (2012).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에 관한 비교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 윤은하. (2016). 아키비스트의 객관성에 대한 재고찰 - 클리포드 기어츠 (Clifford Geertz)의 인류학적 방법론을 통해. 『기록학연구』, 27, 131-159.
- 이관춘. (2013). 『직업은 직업이고 윤리는 윤리인가』. 서울: 학지사.
- 이관춘. (2016). 『NCS 직업기초능력 직업윤리, 경쟁의 새로운 패러다임』. 서울: 학지사.
- 이상민. (2003). 아키비스트 윤리 규약과 논평. 『기록학연구』, 7, 199-210.
- 이소연. (2011). 기록관리와 전문성 - 실천으로만 보장받는 배타적 특권.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1), 113-138.
- 이영남. (2016). 기록학과 윤리적 관점. 『기록학연구』, 50, 5-60.
- 이영대, 김선태, 이남철. (2008). 『직업세계와 나의 직업 찾기』. 서울: 교학사.
- 이영학. (2008). 매뉴스크립트 관리전문가들의 국제협력 및 연대. 『기록학연구』, 18, 335-334.
- 이영학. (2009).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운영 현황과 전망. 『기록학연구』, 21, 323-353.
- 이제혁. (2012). 『비정규직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취업 후 조직 적응 과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이현정. (2014). 기록학 실천주의(Archival Activism)의 과제와 전망: 월가점령운동 기록화 사례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42, 213-243.
- 이호신. (2012). 『주제전문사서의 직업정체성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 법학전문사서를 중심으로 -』.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이호신. (2016). 기록의 힘: 기억, 설명책임성, 사회정의. 『인문과학연구논총』, 37(3), 329-338.
- 장지영. (2017). 『미술작가의 기록 생산과 활용에 관한 질적연구』. 석사학위

- 논문. 한성대학교 대학원.
- 정은재, 김용섭. (2002). 『현대한국사회와 직업윤리』. 서울: 학문사.
- 정하영. (2012). 『서울특별시 자치구청 소속 기록연구사의 직무특성 및 직무 환경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대학원.
- 조남두. (2015). 『현대인의 직업윤리』. 서울: 동문사.
- 조성심, 권지성, 윤호순, 조휴정. (2013).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직업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9(1), 169-197.
- 최명선. (2013). 『미술치료사의 전문가 되기 여정에 관한 존재론적 탐구』.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최정은. (2011). 『‘사회적 기억’과 구술기록 기록화에 관한 연구 - 구술기록 수집 및 기획 단계에서의 아키비스트 역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 최창현. (2014). 정부 관료제의 문제점 분석과 대책: 세월호 참사를 통해 본 국정관리력, 정치력, 그리고 기관신뢰 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 28(3), 55-84.
- 한국기록관리학회. (2015). 『기록관리론: 증거와 기억의 과학』. 성남: 아세아문화사.
- 한국기록전문가협회. (2014). 『한국기록전문가윤리강령』.
- 한국기록학회. (2008). 『기록학용어사전』. 서울: 역사비평사.
- 한국심리학회. (2014). 『심리학용어사전』. <http://www.koreanpsychology.or.kr>

2. 국외문헌

- Cox, R. J. (1995). Archives and Archivists in the Twenty-First Century: What Will We Become?. *Archival Issues*, 20(2), 97-113.
- Creswell, John W. (2013).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3rd ed. London: Sage. 조홍식 외 역.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서울: 학지사. 2015.
- Duff, W. M. & Harris, V. (2002). Stories and Names: Archival Description as Narrating Records and Constructing Meanings. *Archival Science*, 2, 263-285.
- Jimerson, Randall C. (2009). Archives power: memory, accountability, and social justice. Chicago: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민주화 운동기념사업회 역. 『기록의 힘: 기억, 설명책임성, 사회정의』.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6.
- Ridener, John. (2009). From Polders to Postmodernism : A Concise History of Archival Theory. Duluth: Litwin.
-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Sage.
- Miles, M. & Huberman, A. M. (1994). Qualitative data analysis : An Expanded sourcebook. 박태영, 박소영, 반정호, 성준모, 은선경, 이재령, 이화영, 조성희 공역. 『질적자료분석론』. 서울: 학지사. 2009.
- Krzmaric, Roman. (2012). How to find fulfilling work. 정지혁 역. 『인생학교: 일 - 일에서 충만함을 찾는법』. 파주: 쌤앤파커스. 2013.
- Schumacher, E. F. (1979). Good Work. 박혜영 역. 『굿 워크』. 서울: 느린 걸음. 2011.
- Skovholt, Thomas. (2001). The Resilient Practitioner: Burnout Prevention

- and Self-Care Strategies for Counselors, Therapists, Teachers, and Health Professionals. Boston, MA: Allyn and Bacon. 유성경 외 역. 『건강한 상담자만이 남을 도울 수 있다』. 서울: 학지사. 2003.
- Cook, Terry. (2004). Macro-appraisal and Functional Analysis. *Journal of the Society of Archivists*, 25(1), 5-18.
- Cook, Terry. (2013). Evidence, Memory, Identity and Community: Four Shifting Archival Paradigms, *Archival Science*, 13, 95-120.

3. 관련 법령 및 표준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2017. 09. 22)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 09. 22)
- 「기관장 등 관리자의 기록관리 책임과 역할」 NAK/S 21:2012(v1.0)

4. 참고사이트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 두피디아. <http://www.doopedia.co.kr/>
-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http://www.ica.org/>

부 록

〈부록 1〉 연구참여동의서

연구참여동의서

연구제목 : 공공기관 기록전문직의 직업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저는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기록관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장서연입니다. 석사학위논문으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기록전문직의 직업경험을 질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기록전문직의 직업경험과 그 속에 담긴 문화적 요인들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들은 어떠한 동기로 기록전문직이라는 직업을 업으로 선택하였으며, 어떠한 직업경험을 하고, 궁극적으로 이 직업이 본인들의 삶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심층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면담의 시간은 90분 이상이 될 것이며 첫 면담의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면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 귀하께 이메일이나 전화로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면담의 과정은 모두 녹음되어 녹취록으로 작성될 것이며 작성된 녹취록과 분석 내용은 귀하의 검증을 거쳐 연구 결과에 사용 될 것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 얻게 되는 개인정보 및 귀하에 관한 정보는 어떤 자료도 귀하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귀하의 신상이 노출되거나 행여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 익명으로 처리하는 등 제반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연구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구 과정에서 언제든지 연구에 대해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자의 질문 중 대답하기 부담스러운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 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이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기록전문직으로서 그 동안의 귀하의 직업적인 삶을 성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도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또한 기록관리 분야의 기록전문직의 직업적인 삶의 모습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서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도교수 : 이 호 신

한성대학교 응용인문학부 문헌정보학과 교수

연구자 : 장 서 연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기록관리학전공 석사과정

연 락 처 : * * * - * * * - * * *

본 연구에 참여를 허락하신다면 다음에 서명해주시시오.

본인 _____ 은(는) 이 연구의 취지와 특성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연구참여자 : (인)

연구자 : (인)

ABSTRACT

A Qualitative Study on the Job Experience of the Archival Profession in Public Institutions

Jang, Seo-Yeon

Major in Archives & Records Management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Since the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was introduced in Korea, the quantitative volume of the discipline and its practice has constantly been increasing including the enforcement of applicable statutory regulations, a growing number of records managers and archivists deployed in public institutions, and the continuous increase in educational institutions offering relevant courses. Over the past two decades, the discipline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in Korea has rapidly grown up, whereas the archival profession in charge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is still struggling in public institutions. According to research on the archival profession, a paucity of understanding about the records management or archival profession in the public sector drives the archival profession to multiple conflicts. The archival profession is crucial as the key agent for the development of

records management and as the practical actor in the field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in that it serves as the driving force capable of triggering some positive changes in practice for the advancement of the field. However, the specific vocational aspects of the archival profession have not been well-documented. Hence, it is about time to appreciate and discuss the need for a positive transformation of the job experience in the archival profession.

This study explores the job experience of the archival profession and relevant cultural factors to holistically appreciate the vocational life of the archival profession. To that end, this paper narrows the topic to three questions, i.e. the motivation for choosing the archival profession, the job experience in the field of records and archives, and the meaning of engaging in the archival profession in life. Also, the author conducted a semi-structured interview with nine interviewees engaging in the archival profession in public institutions for in-depth analysis of their life. From the data analyzed as per the inclusive analysis procedure based on the pragmatic eclecticism suggested by Kim Young-cheon, 9 categories of the job experience of the archival profession, three sub-themes and one cultural theme were derived.

The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aspiration’, ‘barren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and ‘nestling in institutions’ represent the job experience of the archival profession, with one cultural theme penetrating their experience being ‘those who dream about professional archivists’. The foregoing results suggest some noteworthy cultural phenomena, which have a few implications for the field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First, the archival profession shares a sense of vocational ‘isolation,’ which supports the need for archival profession groups and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fields to unroll more activities with a view to strengthening the solidarity and pride of archival communities.

Second, the archival profession is faced with multiple conflicts and anomie in relation to their identity, with a 'vague vocational identity' underlying the conflicts. Thus, it is critical to promote the social value created by the archival profession and continue to explore the tangible and explicit identity of the profession so as to enhance the public awareness. Third, despite the unfavorable conditions, the energy that empowers the archivists to stick to their profession comes from their 'mind-set' involving their expertise and sense of vocational calling. This finding suggests philosophy should be reinforced in the curriculum of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so as to link the archival profession to its historical calling and vocational consciousness.

【Keywords】 Archival profession, job experience, roles of archivists, sense of vocational calling, identity of archival profession, qualitative study